

금주의 기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과 동행하는 이름뿐인 크리스천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7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19년 8월 31일 (토) 제 1744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무늬만 크리스천” 다시 하나님 품으로!

CT, 명목상크리스천이 교회 떠나기 전 교회공동체가 할 수 있는 사역 소개

“무늬만 크리스천” 즉 명목상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이름 뿐인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다. 주로 기독교 전통이 있는 나라, 민족, 단체, 가문에서 생의 통과례로서 유아세례, 결혼식, 장례식 때만 교회에 나오고, 평소에는 교회 예배에 거의 나오지도 않으며, 기독교 활동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이 명목상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하다. 이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기독교와 접촉을 가진 사람들이며,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며, 또 그렇게 불린다. 그러나 순전한 기독교 신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세 가지 필수요소 1)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신앙고백 2)규칙적인 교회 예배 출석 3)기독교 신앙 활동(선교, 봉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 이런 것들은 결여돼있는 그야말로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다.

명목상 크리스천의 문제는 이미 초대교회에서도 심각하게 언급되고 있음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여 주

여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행치 않는 자들”(눅6:46),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 하는 자”(딤후3:5),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계 3:1절 이하) 등이 그것이다.

그들은 기독교를 싫어하지 않는다. 현실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느낄 뿐이다. 따라서 1998년 로잔대회에서는 이들을 새로운 선교 대상으로 보고 구체적인 전략까지 제안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무늬만 크리스천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크리스천리티투데이(CT)는 각 분야 전문가 3인에게 물었다. 이들이 아예 신앙을 버리기 전에 다가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를?(Three Views: How Can Churches Reach Nominal Believers Before They Become 'Nones'? : Experts discuss how to prevent nominal Christians from leaving the faith).

충격을 가하라

(드류 다이크, “리터십저널” 편집장이며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었던 세대: 청년들이 신앙에서 떠나는 이유...그들을 신앙으로 되돌리는 방법(Generation Ex-Christian: Why Young Adults Are Leaving the Faith...and How to Bring Them Back)”의 저자)

맹렬 무신론자들이 복음 전도에 던진 도전들에 비하면,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에게 다가가는 일은 식은 죽 먹기처럼 보인다.

어쨌든 이들은 믿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것 하나만으로도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자처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종교를 비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에 조금

만 건드리 주면 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벼운 토닥거림이 아니라 충격일 것이다. 명목주의(Nominalism)는 본질적으로 영적 착각(spiritual delusion)이다. 이것은 특히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

록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신론자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최소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자기들의 입장을 정확하게는 이해하고 있다. 반면, 이들은 여러

비성경적 이유를 들어 자기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한다. “우리 할머니는 침례교 신자였습니다.” “나는 성탄절 같은 절기 때는 교회에 갑니다.”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오해들은 성경적 진리를 통해 민감하면 서도 예리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추종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정신이 번쩍 들 만한 말씀을 하신다. “수많은 무리” 쪽으로 몸을 돌이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26-27절).

(3면으로 계속)

미 낙태권 축소, 아직 민심반영 아니다!

RNS, PRRI 설문결과 통해 낙태금지법 정치 연계 분석

미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낙태 논란은 역사적인 ‘로 대 웨이드’ 판결 지키기 vs 뒤집기 싸움이다. ‘로 대 웨이드’는 1973년 미 연방대법원이 최초로 여성의 임신 중절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판결로, 대법원은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낙태권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순 없었지만 중절클리닉에 지원하는 예산을 깎고, 보수적인 대법관을 임명하는 일은 가능했다.

특히 전통적 공화당 우세 지역에선 트럼프 당선 전부터 이 같은 보수화가 ‘중절클리닉 감소’로 나타났다. 2012년 41곳에 달하던 텍사스주(인구 2900만)의 중절클리닉은 7년 사이 절반으로 줄었다. 진보 성향의 캘리포니아(인구 4000만)에 150곳이 넘는 중절클리닉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미주리, 켄터키, 미시시피 등 그 외 7개 공화당 우세 주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중절클리닉이 줄어 각각 한 곳만 남아있다.

또 조지아와 텍사스 등 11개 주에서 초음파로 태아의 심장 박동을 확인할 수 있는 6주 이후부터 낙태를 금지하도록 한 ‘태아심장박동법’을 채택했거나 논의 중이다.

그런데 최근 설문 조사에 따르면(The State of Abortion and Contraception Attitudes in All 50 States), 미국의 어떤 주에서도 모든 낙태가 불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공공종교연구소(PRRI; 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는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4만2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Survey: Less than 25% in any US state approves total ban on abortion).

설문 결과에 따르면, 심지어 사실상 예외 없이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된 앨라배마주나 미주리주조차도 낙태가 항상 불법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5분의 1도 안 된다. 앨라배마주 주민의 16%, 미주리주 주민의 19%

만이 그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초기낙태금지법은 앨라배마주와 미주리주에서 법정공방이 오가고 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은회관 목사 3면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7면



인터뷰 김경일 목사 9면

ATS와 ABHE 공인된 최고의 온라인 교육 **월드미션대학교**
 신학 / 상담학 / 음악학 / 간호학 / 유아교육 / 가정사역 / NGO사역
캠퍼스 | 온라인
 www.wmsu.edu | (714) 388-1000 | 1500 Shatto Pl., LA, CA 9002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다락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Grove Blvd., Graden Grove, CA 92844

찾아가는 소그룹 세미나
박공서 목사의 성경적세계관 바로알기

영적 암흑기인 21세기!

우리에게 마지막때의 복음서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절실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환타지 예언 소설이 아닌 연단을 통한 속죄(거룩)의 진리를 증거하는 성경입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현대 교인들은 이단 사이비집단의 농간으로 인하여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위험한 책이라 생각하여 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경66권중 유일하게 요한계시록만이 '예수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하며,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고 증거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올바른 성경적세계관이 없으면 결코 풀 수 없는 성경의 결론입니다. 본 소그룹 세미나는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쉽게 인격적으로 정립시켜주어 요한계시록을 쉽게 풀 수 있는 안목을 줄 것입니다.

일시 2019년 9월 19일(목), 20일(금) 오후 1시-5시
장소 나성 삼일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Angeles CA 90006)
대상 목회자와 선교사, 모든 그리스도인 참가비 없음 (교재 무료 제공)
문의 213-389-6000

일시 2019년 10월 3일 목요일 오후 1시-5시
장소 임마누엘기도원 (원장:정정숙 목사) 514 Big Valley Ln Belton TX 76513
대상 목회자와 모든 그리스도인 (장소관계로 20명 이내로 접수받음) 참가비 없음 (간식 & 교재 제공)
문의 254-613-0387

일시 2019년 10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 5시
장소 폴마틴전도협회 로렘 수양관 (449 Rosehall Ln Temple TX 76504)
대상 목회자와 모든 그리스도인 (장소관계로 20명만 접수받음) 참가비 없음 (간식 & 교재 제공)
문의 254-541-3355



강사 소개 박공서(폴마틴) 목사

한국 부천시 소재 새부천교회 담임, 예장 대신 경안노회 노회장, 폴마틴 전도협회 회장, 성군관대(영문학), 안양신학대학원, 연세대신학대학원 수석 CTS기독교비 특강 강사. 국내외 성경적세계관과 요한계시록 주 강사 (중국, 일본, 미얀마, 인도, 나이지리아, 필리핀, 파라과이, 콜롬비아, 미국등)
 *유튜브에서 박공서 목사의 이야기요한계시록 치면 강의 볼 수 있음

발행인 칼럼

꼭 챙겨야 할 것



김성국 목사 (퀸즈왕로교회 담임)

유난히 더웠던 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된다. 자녀들이 학교로 돌아간다. 학교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왁자지껄 소리와 함께 거리거리를 메울 것이다. 이들 중에 가장 흥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활을 시작하려고 집을 떠나는 친구들일 것이다. 자녀를 떠나보내는 부모의 착잡하고도 무거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은 만면에 미소를 띠고 이것저것 가져갈 것을 챙긴다. 캠퍼스...

스로 첫 발을 딛는 우리 자녀들이 꼭 챙기는 것 중에 최우선 물품은 무엇일까? 최신세대 스마트폰일 것이다. 다른 것 다 놔두고 가도 스마트폰을 두고 가는 친구들은 없을 것이다. 그 외에 기본적인 옷이나 신발, 자신이 선호하는 샴푸나 베개 등을 집 보따리에 집어넣는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가만 보니 그 중요한 것을 챙기는 자녀도 또 꼭 챙겨주려는 부모도 찾기 쉽지 않다.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다른 아닌 분별력이다. 이것이 없이 빚어질 일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선악의 기준이 사라진 캠퍼스에서 분별력 없이 다른 짐들을 꺼내고 있을들, 이런저런 사상과 유행 속에 휩싸일 우리 자녀들의 앞날은 참담할 것이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왕상3:9). 이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함께 온갖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음을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준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선택의 하루를 시작한다. 눈 뜨고 맨 처음 무엇을 해야 할지, 아침식사무엇을 먹을지, 오늘의 드레스코드로 무엇을 취할지... 짧은 하루에도 선택해야 할 것은 수십 개가 넘는다. 잔잔한 일상의 선택 외에도 무엇을 전공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역이민(逆移民)을 해야 할지, 생애를 바꿀 선택들도 여럿 있다.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의 하루와 우리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일 것이다.

역사에 길이 남을 선택도 있었다. 예서는 장자의 명분과 팔죽 사이에서 팔죽을 선택했다. 그리고 땅을 치고 후회했다. 그 선택 이후 그와 그의 후손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안다. 마틴 루터 킹은 침묵과 외침 사이에서 외침을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라고 이어지는 담대한 외침을 듣는다. 죽음의 값을 치른 그의 외침을 진정한 현실로 바꾸려고 많은 이들이 분투하고 있음도 본다. 지도자의 분별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분별없이 덤덤덤 선택하는 지도자 때문에 죽을 맛을 보고 또 보는 가련한 백성들도 있지 않은가.

분별은 분명히 선택에 앞서야 한다. 이 세상에 분별없이 선택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분별이란 단어는 누구나 사용한다. 무엇이 그 분별의 기준인가는 사람마다 다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이 분별의 기준이다. 어쩔래?"하는 사람에게 무어라 말하겠는가. 우리의 분별의 기준은 확연히 다르다. 그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좋은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면 나쁜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이 분별의 유일한 기준이다. 캠퍼스로 가는,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꼭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이 분별력이다. 물론 우리 부모들도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도 꼭 챙겨야 할 것이다.

라인홀드 니버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평온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시켜야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 땅에 속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국을 사랑한다!"

CT, 기독교윤리 전문 데이빗 P. 거쉬 교수가 말하는 '크리스천의 나라사랑' 소개

"나라 사랑이 크리스천에게 최고의 사랑은 아니지만 사랑해야 하는 대상인 것만은 분명하다."

아버지는 뺨뺨한 성조기를 집 밖에 게양하곤 했다. 국경일뿐만 아니라 1년 내내 국기를 달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이유를 말씀해주신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특별한 애국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이기는 했지만, 전쟁에 대해서는 너더리나는 기억밖에 없어보였다. 아버지는 의회에서 분석가로 일하시는 동안 중요한 정책 문제로 시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공청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 아버지는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했지만, 그렇다고 감상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분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집에는 늘 성조기를 꽂아두셨다.(What's Right About Patriotism: The nation is not our highest love, but it still deserves our affection).

크리스천이 애국심을 품는 것이 신학적으로 옳은 일일까?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신분을 가진 기독교인이 이 세상 나라를 향한 충성의 깃발을 흔들어도 좋은 것일까? 다른 문제들도 그렇지만, 이 문제 역시 크리스천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숫자상 감소 추세를 보이는 미국 우파 크리스천은 조국을 향한 사랑을 표하고, 그 사랑의 증표로 자랑스럽게 성조기를 흔들다. 반면 좌파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전 세계를 향한 사랑을 강조하

간으로서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상황 하에 태어난 스스로의



면 애국심이라는 말만 들어도 나치의 삼엄한 행진 장면이 머리에 떠오를 것이다.

절박하고 두려움이 팽배했던 시절에는 그런 식의 선동도 통했지만, 현대 민족주의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자신이나 가까운 관계 이외에, 조직이나 기관에 충성하려는 의식이 너무 약해진 것이 문제다.

라인홀드 니버는 1930년대 초반에 이런 말을 했다. "애국심에는 최소한 자기 자신을 벗어나 더 넓은 공동체를 위한 미덕이 있다. 애국심도 국가적

을 보며 미국이 불꽃놀이 하나를 기막히게 한다는 것 외에 무얼 배울지 의문스럽다.

교회는 애국에 대한 복합적인 사명을 의식해야 한다. 미국인들이 애국심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공간이 무너져 갈수록 교회의 어깨가 더욱 무겁다.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신중하게 애국을 논해야 한다. 우리는 조국을 사랑하지만 영원히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조국이 번영하기를 바라지만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지역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이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국가 이념을 존중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미국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다른 나라도 축복하신다.

애국심에 대한 이러한 모든 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라를 사로잡는 생각이 있다. 조국을 사랑하고 충성할 줄 모르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을까!

교회는 애국에 대한 복합적 사명 의식해야 좌파의 국제주의와 비판적 태도 공격 우파의 국수주의적 잘못된 헌신 비난

고, 그중 일부는 미국의 행동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한다. 결국 우파는 좌파의 국제주의와 비판적 태도를 공격하고, 좌파는 국수주의에 대한 잘못된 헌신을 비난한다.

철학자 제프리 스타우트는 신앙심이란 존재의 근원을 향한 감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미덕이라고 말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애국심도 일종의 신앙심으로 볼 수 있다. 국가가 인간 존재의 실존 장소이자 지리적 근원지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태어나고, 움직이고, 생활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감사의 표시로 애국심을 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만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해서는 안 된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다.

애국을 거부하는 것은 한 인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가족, 장소, 시대에 뿌리를 둔 자연적 유대관계를 묵살하는 행위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이지, 다른 시대에 다른 부모님을 모시고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혼이 아니라 육신이 있는 인간이며, 하늘이 아니라 이 땅 어딘가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다. 애국이란 우리 육신이 자리 잡고 살아가는 특정한 나라에게 그저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려 깊은 진보 성향의 크리스천들은 감상적인 애국심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들은 20세기의 광적인 민족주의가 빚어낸 끔찍한 상황들을 경험했다. 현대사를 공부한 학생이라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볼 수 있지만 분명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개인적 이기주의에서 발전된 형태다."

신학적 견지에서 미국을 볼 때, 일말의 애국심이라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지역교회라는 사실은 애석한 현실이다. 미국의 공공 행사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찾아보기란 힘들다. 남아 있는 애국심의 표현이라곤, 그저 가끔씩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독립 기념일 불꽃놀이 정도다. 그것

(David P. Gushee has been the Distinguished University Professor of Christian Ethics and Director of the Center for Faith and Public Life at Mercer University since 2007. He was formerly the Graves Professor of Moral Philosophy and the Senior Fellow of the Carl F. H. Henry Center for Christian Leadership at Union University in Jackson, Tennessee).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5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5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9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도서
DON'T GIVE UP: 포기하지마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내게 힘을 주는 교회
행복예수
하늘과 바다에서 건진 이야기

회원사
남북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독일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조이서적 213-380-8793 www.joyla.com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임승쾌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무늬만 크리스천” 다시 하나님 품으로!

(1면에서 계속)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주춧돌지 모른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 하고, 믿음에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해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예수께서는 잠재적 추종자들을 극도로 불편하게 만드셨고, 자신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주지시키셨다.

오늘날에도 이처럼 솔직한 이야기를 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때로는 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냉철하게 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말라. 우리는 쓸데없이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을 불쾌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매력적이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기독교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말해주어야 한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를 분명히 말해주어야 한다.

고인이 된 기독교 지도자 존 스토트는 “기독교의 기

본진리”에서 이렇게 한탄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얼마나 많은 대가가 필요한지 단 한 번도 숙고해 보지 않은 채 그분을 따르기 시작한다. 그 결과 기독교 세계는 소위 ‘명목상 기독교’라는 매우 수치스러운 이름을 얻게 됐다.”



교회를 위한 나의 기도는 이처럼 수치스러운 이름이 지속되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다. 언젠가 복음이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상황과 직면할 때, 어떤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은 진정한 신앙의 반응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가버리더라도 그리스도가 얼마나 자신들에게 필요한 분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작각에서는 벗어날 것이다. 적극적으로 환대하라

(켄다 크리스티 던, “유사 그리스도인: 십대들의 믿음이 미국 교회에게 말하는 것(Almost Christian: What the Faith of Our Teenagers Is Telling the American Church)”의 저자이며 프린스턴신학교에서 청년, 교회, 문화에 대해 가르치는 교수)

성경의 기록만 본다면 유두고를 이 세상 첫 번째 “불신자”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는 드로아에 있는 교회에 다녔지만 결국 그 교회에서 떨어져 버렸다. 말 그대로.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잘 알 것이다. 바울은 드로아에 있는 교회에서 늦은 밤까지 “계속해서” 강론했고 무리 중에는 유두고라는 청년도 있었다. 그런데 그는

열린 창문 옆에서 위태로이 졸고 있다가 삼층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바울은 유두고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강론을 중단하고 교회 밖으로 나갔다. 그러고는 팔로 그 젊은이를 안고서 놀란 군중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행20:10).

사회학자인 노트르담대학교의 크리스천 스미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 청년들은 스스로를 명목상의 크리스천이라고 여기고 있다. 또한 18세부터 30세까지의 청년들 중 1/3은 아직까지 어떤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한때는 유두고처럼 교회에 다녔다.

작가인 엘리자베스 드레셔에 의하면, 불신자들 중 70%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다. 다시 말해 이것은 수많은 유두고들이 다른 누군가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라는 것이다. 그들은 주일학교에 다녔고, 침대 위에서 성경 이야기를 들었고, 저녁 식탁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말했던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결국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 그들이 이런 운명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4면으로 계속)



시론

‘나’를 ‘향’한 봉사과 헌신 ‘사역’



은희곤 목사 (뉴욕 참사랑교회)

-피리를 불면서 독사를 현혹하는 뱀 쇼가 사람들에게 재미있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만약 그 뱀을 나 홀로 숲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 누구도 재미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거 영국 지배하에 있었던 인도에서는 코브라에게 물려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코브라를 잡아오면 보상을 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독사를 잡는 일은 매우 위험하지만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코브라를 잡아 보상을 받았습니. 많은 보상을 세금으로 처리해야 했지만 정책은 나름대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코브라가 많이 사라져 인명피해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거리의 코브라가 줄어들어 인명피해는 줄어들었는데, 코브라를 잡아 와서 보상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느낀 관계자들은 보상을 받는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그 사람들은 인도 델리 곳곳에 코브라 농장을 만들어 코브라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위험하게 거리의 코브라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른 코브라로 안전하게 보상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브라 농장이 곳곳에서 많이 발견되어 결국 ‘코브라 보상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쓸모없어진 코브라를 야산에 무단으로 버렸고, 결과적으로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욱 악화하는 결과를 낳는 현상을 경제 용어로 ‘코브라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한 결과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반대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떠온 글).

혹시나 ‘코브라 효과’, 그 어처구니없는 결과까지도 유추해볼 수는 없었을까? 혹시나 만약 그럴 수 있었다면 이런 현상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등등의 뒷북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결국 ‘코브라 잡기 운동’은 대가로 ‘돈’을 지불하자, ‘본질’에 ‘돈’이 결부되니 본질이 ‘변질’되고 엉뚱하게도 ‘코브라 효과’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들여다봅니다. 교회도 이질적인 문화와 오랜 시간동안 현장 안에서 공존하다 보니, 교회 안에도 현실적으로 여과 없이 이런저런 세속적 문화의 세속적 방법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사역’은 점점 희미해지고 교회의 이런저런 사업들만 두드러지게 됩니다. ‘노래’를 해도 말씀과 기도 위에서 해야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됩니다. ‘일’을 해도 말씀과 기도 위에서 해야지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됩니다. ‘친교’를 해도 말씀과 기도 위에서 해야지 ‘성도의 교제’가 됩니다. 남, 여선교회에서 모여 골프를 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향한 말씀과 기도 사역”은 안하고 관심도 없는 채, 교회 안에서 골프를 치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동호회에서 같이 운동하면 됩니다.

우리들은 ‘사역의 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역’이라 할 때 흔히 그 방향을 ‘외부’ 즉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과 헌신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의 방향은 먼저 ‘나를 향한 사역’이어야 하고, 나를 향한 사역에 대한 봉사과 헌신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쓰는 ‘나를 향한 말씀봉사사역’, 먼저 내가 내 기도자리가 곱팡이 나지 않도록 만드는 ‘나의 기도헌신사역’이 ‘내 사역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사역의 방향성’은 “나”이고 내 사역의 헌신 우선순위는 ‘말씀과 기도사역’입니다. 내가 나를 향한 “말씀과 기도”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도 교회공동체 사역가운데 우선순위는 “교회의 말씀과 기도 사역”입니다. 성도들 개개인도 그 위에 삶이 세워져야 하고, 교회공동체도 그 위에 사업들이 계획되어져야 합니다. 사단과 마귀는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두루 다니는 이 세상(벧전5:8)에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교회를 유혹해서 ‘나와 교회의 본질’을 점점 무력화시키고 변질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나와 교회의 코브라 효과’를 노립니다. 이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의 영”(마4:10, 막9:29, 딤후4:5)뿐이 없습니다.

사단의 영은 욕(각종 사업)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의 영은 영(말씀과 기도)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평상시에 나와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의 영’을 충실히 지켜야 ‘사단과 마귀들의 코브라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요일5:4) 이 믿음은 본질로의 회귀, ‘나와 교회공동체의 말씀과 기도사역’입니다. 이 가을이 ‘나를 향’한 ‘말씀봉사’와 ‘기도헌신’ 사역을 통하여 내 영이 살찌워지는 계절이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pastor.eun@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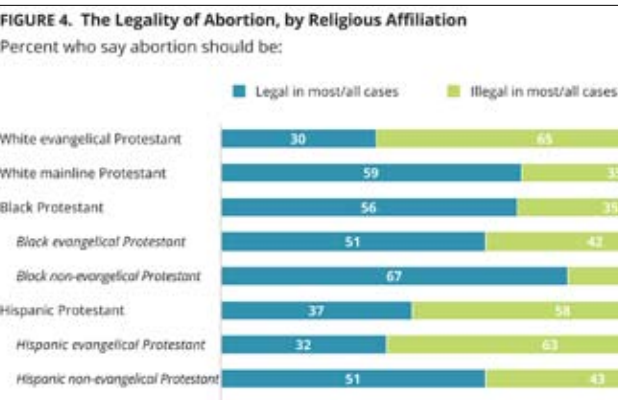
미 낙태권 축소, 아직 민심반영 아니다!

(1면에서 계속)
PRRI 대표(Robert P. Jones)는 “이러한 결과는 초기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킨 공화당이 주도하는 임법부가 국민뿐만 아니라 주민이나 당원과도 접촉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주에서도 낙태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PRRI에 따르면, 모든 낙태가 불법이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014년 16%에서 2018년 15%로 감소했다. 그리고 모든 낙태가 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014년 21%에서 2018년 23%로 증가했다.

전체 22개 주에서 대부분의 낙태가 합법이어야 한다

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반 미만이었다. 이들 중 12개 주에서 대다수는 낙태가 불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PRRI 연구진은 조사에 응한 미국인의 4분의 3 이상이 지난 5년 동안 낙태에 대한 의견이 변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종교별로는 히스패닉인

개신교 신자(21%)와 천주교 신자(16%)가 낙태에 대해 더 반대한다. 반대로 불교 신자(18%)와 뉴에이지운동 지지자(18%)는 낙태에 대해 더 지지한다.

보수적인 종교단체의 회원들은 대부분의 낙태를 불

법화하는 것을 선호한다.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는 65%, 여호와의증인은 68%, 물몬교는 66%, 히스패닉 개신교 신자는 58%였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개신교단체의 대다수는 대부분의 낙태가 합법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백인 주류 개신교 신자는 59%, 흑인 개신교 신자는 56%였다.

천주교 신자는 거의 동등하게 나뉜다. 대부분의 낙태를 합법화하는데 찬성하는 사람 모두 10명 중 4명 수준이었다(각각 40%).

미국인의 21%는 정치 후보자의 낙태에 대한 관점이 협상을 결렬시키는 쟁점(deal-breaker)이라고 말한다. 합법적인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27%)은 본인의 견해와 같은 후보에게만 표를 주겠다고 답했다. 히스패닉계 개신교 신자,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 유대계 미국인의 10명 중 3명은 낙태에 대한 견해가 본인과 같은 후보자에게만 표를 주겠다고 말한다.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교회)



모두 윈윈

풍선 터트리기 게임을 해보셨습니까? 엉덩이로 주저앉아 터트리기, 두 사람이 껴안아 가슴으로 터트리기, 발로 밟아 터트리기... 어린 시절 다양한 풍선 터트리기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멘로파크장로교회 담임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오트버그 목사가 그의 책 '인생게임'(When the game is over it all goes back

in the box)에서 4학년 학생들의 풍선 터트리기 게임을 소개했습니다. 발로 서로의 풍선을 밟아 터트리야 이깁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풍선을 지킨 아이가 최후의 승자입니다.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첫 번째 반 아이들이 게임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인정 사정없이 다른 아이들의 풍선을 발로 밟아서 터트리거나. 여기저기서 '뽕', '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곧 한 풍선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풍선의 주인이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반 학생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게임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모두 지적 장애인들이어서 옆에서 지켜보는 어른들이 불안해합니다. 넘어져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게임 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소녀가 무릎을 꿇고 상대방 아이가 자기 풍선을 쉽게 터트릴 수 있도록 풍선을 손으로 붙잡아 줍니다. 그러자 상대방 아이는 소녀의 풍선을 발로 쳐서 '뽕'하고 터트리거나. 이번에는 풍선을 터트린 아이가 무릎을 꿇고 자기 풍선을 잡아주자 소녀가 발로 그 아이의 풍선을 터트리거나. 이처럼 아이들은 서로 협력하여 풍선을 터트리거나. 여기저기서 '뽕', '뽕' 풍선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모든 풍선이 터지자 모두 손뼉을 치며 기뻐합니다. 모두가 승자입니다. 모두가 윈윈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우리도 윈-윈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나친 경쟁만능주의 사회, 악의적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윈(Win, 승리)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 상대방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잡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사람에 대한 배려심과 존경심을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협력과 협업을 통한 윈-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윈-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자녀들이 신앙의 계승자들이 됨으로 두 세대 모두 윈윈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기성세대와 다음세대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한어권과 영어권이, 새신자와 기존신자들이, 여성도와 남성도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서로 협력함으로 윈-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는 일,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일, 세상에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 세상 끝까지 가서 제자 함을 통한 윈-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윈-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자녀들이 신앙의 계승자들이 됨으로 두 세대 모두 윈윈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대할 때 다른 사람의 윈을 손뼉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윈(승리)을 진심으로 축하할 때 우리 모두가 윈너(Winner, 승리자)가 됩니다. 모두에게 윈-윈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대할 때 다른 사람의 윈을 손뼉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윈(승리)을 진심으로 축하할 때 우리 모두가 윈너(Winner, 승리자)가 됩니다. 모두에게 윈-윈이 됩니다.

푸/른/초/장

장덕상 목사
(필라 한인개척장로교회)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을 역임한 지미 카터에게 해비타트 운동을 하며 손수 집을 짓는 노동에 참여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나는 한 채의 집을 지을 때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세워주기 위해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연약한 그의 자녀들을 바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일은 이웃의 집을 세우는 일과 같습니다. 그들을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 주인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의 삶을 함부로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 껍데기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들의 성장 배경, 인생경험, 정치적 소신에 따라 모든 생각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니까 자주 논쟁이 되고, 논쟁이 심해지면 싸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의 가치와 생각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피하지 않으면서도 상처 주고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 껍데기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들의 성장 배경, 인생경험, 정치적 소신에 따라 모든 생각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니까 자주 논쟁이 되고, 논쟁이 심해지면 싸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의 가치와 생각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피하지 않으면서도 상처 주고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그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며, 깃발이 없으면 왕이 그곳에 없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 삶에는 내 주장과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영광과 희락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흥분하고 감격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지배하심으로 내 삶 속에 의와 영광과 희락이 이루어져 가는 질적인 성숙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삶에 무엇이 죄냐 아니냐 하는 논쟁에 대한 결정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23절).

이 그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며, 깃발이 없으면 왕이 그곳에 없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 삶에는 내 주장과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영광과 희락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흥분하고 감격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지배하심으로 내 삶 속에 의와 영광과 희락이 이루어져 가는 질적인 성숙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삶에 무엇이 죄냐 아니냐 하는 논쟁에 대한 결정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23절).

5. 구원 받은 삶의 진짜 목적
망치를 들고 집을 짓는 지미 카터에게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소감이 어떠한가?"라고 물었을 때 그는 "대통령 후에 이런 일을 하라고 대통령을 시킨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치는 대통령이 아닌 이웃사랑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해비타트 운동의 창시자인 밀라드 폴리의 말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 하나님을 만났고, 물질을 포기하고 가치를 발견했고, 특권을 포기하고 행복을 얻었으며, 자신을 버려 이웃을 찾았고, 패력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남길 수 있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일

로마서 14장 13-23절

1. 서로 판단치 말라
우리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들로 인하여 언쟁을 하다가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비본질적 주제에 대한 논쟁들에 대하여 "서로 판단치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이런 논쟁에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문제로 어떤 형제를 근심케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세우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이 작게 생각하는 상대방을 비판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사업에 큰 손실

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업을 세워 나갈 수가 있을까요?
2. 서로 세워주라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려면 우선 형제들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면 하나님의 일은 저절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형제들을 세워나갈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 것을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형제들이 나로 인해 넘어질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믿음이 강한 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것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작은 의미에서는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으므로 형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의미에서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3. 덕을 세우는 일
우리는 부단히 형제들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덕(edification)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덕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덕'(virtue)이라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덕을 세

우리는 부단히 형제들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덕(edification)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덕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덕'(virtue)이라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덕을 세

우리는 부단히 형제들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덕(edification)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덕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덕'(virtue)이라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덕을 세

우리는 부단히 형제들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덕(edification)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덕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덕'(virtue)이라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덕을 세

"무늬만 크리스천" 다시 하나님 품으로!

(3면에서 계속)

나는 이른바 "불신자들의 급증"이 종교를 거부하는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우리는 과거에도 불신자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차이가 있다면, 오늘의 불신자들은 문화적인 공격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불신자들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이다. 불신자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면, 청소년기의 몇 가지 요소들이 명목상의 청소년 크리스천들을 신실한 성인 크리스천이 되도록 준비시켜 준다고 한다. 스스로 매우 헌신적인 신앙을 배양하는 것, 스치원과 도움을 받은 만한 신앙의 선배들을 갖는 것, 충직한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 특별히 부모에게서 헌신적인 신앙을 배우는 것과 체험적인 신앙을 습득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요구되는 것들이다.

감리교 목사인 드류 다이스는 프린스턴신학교 연구 논문에서 의미, 소속, 적극적 확대를 강조하는 교회들은 "신앙의 표류"를 겪는 청년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사실을 깨닫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교회들은 명목상의 신앙을 가진 유두고들을 예배당 한가운데로 데려와야 하며, 그의 주변에 신실한 스승들과 자원들을 포진시켜야 하며, 그를 의미와 소속과 적극적 확대라는 경험에 폭

잠지게 해야 한다.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설교를 늘어놓기보다 먼저 풀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경축하는 사람들, 교리와 정치가 아닌 은혜에 입각해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로 경험한다면, 더 이상 예배당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잠지게 해야 한다.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설교를 늘어놓기보다 먼저 풀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경축하는 사람들, 교리와 정치가 아닌 은혜에 입각해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로 경험한다면, 더 이상 예배당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에디 김슨, 풀러신학교 명예 교수이며, "교회의 거둬냄: 탈기독교 세계에서의 사역을 위한 바울의 비전 적용(The Rebirth of the Church: Applying Paul's Vision for Ministry in Our Post-Christian World)"의 저자) 어쩌서 수많은 미국인들은 이름만 크리스천인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복잡하며, 진단 또한 신중해야 한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홈스쿨링 하던 가족이 4세 된 아들을 아동보호센터에 빼앗겨

지난 6월 20일, 텍사스 주정부 Child Protective Services(CPS, 아동보호센터)와 텍사스에 새롭게 불어 닥친 반기독교 진보주의 법안들로 인해, 부모의 권리가 완전히 무시되고 결과적으로 확실한 이유 없이 4세 된 아들을 정부에 빼앗기는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막내 4세 아들을 빼앗긴 부부는 3자녀를 두고 홈스쿨링을 해오던 부부이며 이 황당한 일을 겪은 아이는 4세 남자아이로서 이름은 Drake Pardo입니다.

Drake Pardo는 2019년 6월 20일 텍사스에서 아동보호서비스로 알려진 Child Protective Services(CPS)와 경찰관에 의해 부모로부터 확실한 이유 없이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거의 두 달이 지난 지금 Drake의 부모가 여러 법원들을 오고 가며 아들을 다시 찾아 오기 위한 간절한 소송들이 있는 후에서야 왜 자신들이 아들을 빼앗겼는지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는데요, 그 실마리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리포트에 의하면 아동보호서비스가 드레이크를 강제로 빼앗아간 것은 비합법적임을 지금은 텍사스 주정부가 인정하면서도, 4살밖에 안된 드레이크는 여전히 부모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텍사스 홈스쿨연합(THSC) 단체 대표인 Tim Lambert 회장은 “이것은 이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텍사스 정부의 아동보호서비스인 Child Protective Service가 확실하게 고장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다. 아동보호서비스 시스템에는 체계적이며 실질적인 변화가 신속히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이 텍사스 주지사나 다른 입법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다”라고 따끔하게 잘못된 아동보호서비스와 그들의 편에서 주정부 일부 직원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텍사스 공화당 상원의원인 Bob Hall은 이 사건을 “사법의 터무니없는 속보이는 실수”라고 불렀습니다.

CPS(아동보호센터) 사건의 발단

그동안 드레이크는 뇌수술을 받았고, 심각한 식사 문제, 자폐증 증상이 있어서 부모는 6,000페이지 분량의 의료 기록을 통해 드레이크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4월 22일에 드레이크의 의사가 드레이크에게 가장 적합한 수유 튜브의 종류에 대한 두 번째 의견을 얻으려는 부모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의사가 부모들의 중요한 요구를 어떤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거절하자 부모는 델리스에 있는 아동 의료 센터에 대한 공식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병원은 부모에게 회신하길 45일 이내에 부모의 불만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부모는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드레이크의 의사는 부모와 만나기로 합의까지 했지만 나타나지 않았고, 아동보호센터인 CPS 역시 부모에게 어떤 상황 업데이트나 미팅이 다른 날짜로 옮겨졌다는 것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나중

와 갑자기 떨어진 스트레스로 CPS 치료의 첫 2주 동안 6파운드를 잃었고 양질의 치료도 받지 못하는 듯하며, 식사 및 체중 유지 문제 등 현재 4살짜리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부모의 악몽과 같은 진보주의 판사의 그릇된 판결

그런데도 불구하고 7월 2일 첫 청문회에서는 진보주의로 알려진 Michael Chitty 판사는 최대 1년 동안 드레이크의 양육권을 아동보호서비스인 CPS에 부여했습니다. 이유는 CPS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통보하지도 않은 회의에 부모가 나타나지 않았고 또 아이의 상태가 비상상태라고 CPS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사는 결정을 내렸는데, 마이클 치티 판사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모든 잘못을 Drake 부모에게 덮어씌우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며 더 나아가 부모가 가장 필요한 4세 된 Drake에 최악의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8월 9일 최근 다시 열린 청문회에서 CPS는 요구하기를 부모가 아동학대 및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법정에서 인정하면 드레이크를 돌려보내겠다는 황당한 요구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들이 CPS가 원하는 그런 말도 안되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형사 책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Drake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모든 자녀의 양육권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합정을 CP는 권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사건을 맡은 기독교 법률소인 Liberty Council는, CPS가 Drake의 부모를 정죄하고 있는 의학적 방관은 법적으로 왜 정당화 될 수 없는지 델리스 항소법원을 통해 CPS의 황당스러움을 꼬치꼬치 지적했으며, 또 다른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레이크는 여전히 CPS에 구금 중이며 부모는 CPS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는 방문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CPS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드레이크를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은 사실 반기독교 정책들이 많은 주정부일수록 학부모의 권리를 말도 안되는 것으로 꼬투리 잡아 빼앗아가는 법안들이 생겨납니다.

드레이크가 다시 부모에게 돌아가게 되고 부모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에 알고 보니 CPS는 비즈니스 카드를 집 앞 의자에 놓고 갔다는 게 밝혀졌으며 부모는 그 비즈니스카드조차도 바람에 날아가는지 보지도 못했습니다.

46일째 되는 6월 20일에 CPS는 부모에게 아무런 사전 정보나 설명 없이 무조건 Warrant를 들이대며 “아이”를 데려오라고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했으며 부모들의 놀랜 질문들에 하나 대답 없이 7월 2일 법정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고만 하고 4세 Drake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6월 29일, 부모는 원래 만나기로 했던 의사와 만났고, 아동보호서비스인 CPS를 제외한 모든 의사들은 Drake의 치료 계획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CPS는 드레이크가 계속해서 정부의 양육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드레이크가 주 정부의 구금 상태에서 의사들이 동의한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드레이크가 집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드레이크를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4세밖에 안된 드레이크는 부모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위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진리가 저는 쉽게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행함이 있어야 하지 않는지요? 믿음으로 구원이란 것은 마치 일하지 않고 샴을 받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믿음의 교리를 이해되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토렌스에서 청년회원 KWON

A: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하신대로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을 쉽게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공로 중독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해야만 의롭다 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80세가 넘는 장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아버지가 교회의 영수아셨고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님은 지금 권사님이신데 지금 죽어도 천국갈 확신이 있으시지요?” “내가 부족해서, 뭐 한 것이 있었는지?” “그럼 장모님은 예수님은 믿으시나요?” “예수님이야 믿지...오래 전부터 믿었지.” “어머님은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요?” 사람들은 이처럼 구원받는데 “믿음보다 행위”란 요소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기만 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상하게 싸구려 같고 천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행함이 있어야 떳떳하지, 행함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공짜 같아서 뭔가 미더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부모자녀관계로 설명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2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상인관계가 있습니다. 사업상 맺은 관계는 혈연관계가 아닌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이 상인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만들이라는 돈을 꾸가고는 안 갚았다고 합시다. A가 B에게 아무리 그것이 자기 잘못이라고 용서를 빌어도 A가 B에게 만들이라는 손해를 갚지 않는다면 둘 사이의 관계는 말과 마음만으로는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인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과 믿음보다도 행위가 더 중요합니다. 말을 백날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빚진 돈을 다 갚아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둘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A와 B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실수하여 몇만불의 피해를 입혔다고 합시다. 나중에 아들이 돈 벌어 만불에다가 이자까지 해서 이것이 원금이고 이것이 이자입니다. 하고 돈만 갚았다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손해와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한 진심에서 우리나라는 아들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사과드리면 아버지는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주고 부자관계는 즉시 회복이 됩니다. 돈을 안 갚아도 죄송합니다. 하면 다 용서해줍니다. 이것이 부자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돈 즉 행위가 아니라 마음 즉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행위 이전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행위의 옳고 그름으로 끊어지고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무늬만 크리스천” 다시 하나님 품으로!

(4면에서 계속)

명목성은 고정돼있는 상태가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연구들에 따르면, “명목상의 크리스천” 대다수는 결국 “불신자”가 되고 만다고 한다.

몇 가지 주요한 요인들을 살펴보자. 교회는 부주의하게 스스로 개인주의와 소비주의에 굴복함으로써 이러한 상황들을 불러왔다. 문화적 압박을 받는 교회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소속돼있다 할지라도 평생 동안 헌신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될 위험에 처한 교인들은 대부분 격려와 책임과 사역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는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피한다. 이들은 “실제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으면서도 그런 사실을 모르는” 아무 생각이 없는 소비자들이다.

다른 한 극단에는 또 다른 위험에 처한 크리스천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사역으로 인해 힘이 다 소진된 교회 지도자들이다. 지친 그들은 사역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거나 사역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말하곤

하는데, 이것은 더 이상 특이한 모습이 아니다.

또 한 가지 불행한 일은 잘못된 성경해석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을 지배적 세속문화에 취약하게 만든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친근한 관계망 안으로 모음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내야 한다. 명목성에 계속해서 도전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 비슷한 문제로 씨름했던 크리스천들도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을 도와야 한다. 명목성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다.

더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도전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 특별히 두 가지 프로그램은 널리 이용되어 고무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알파코스(Alpha Course)와 라이프웨이시리즈(Discovery Series)로 이루어진 마스터라이프(MasterLife)이다. 1977년 런던의 한 성공회 교회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영국인들과 교회를 싫어하는 영국인들에게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를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알파코스를 시작했다. 이를 시작으로 오순절과 교회들부터 로마가톨릭교회들에 이르기까지 알파코스를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졌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15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알파코스(Alpha Course)에 참가했다. 예를 들어, 파사데나연합교회의

리더들은 기본 프로그램뿐 아니라 알파결혼코스, 알파부모코스까지 이용한다. 어떤 부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수용 제한으로 코스가 조기에 마감돼 다음번에 수강해야 할 형편이네요.”

캘리포니아의 엘라매바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리랜드 햄비 목사는 12년 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신자들을 위한 심화체험훈련으로서 마스터라이프를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어떻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어떻게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성도들과 교제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타인을 섬겨야 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 프로그램은 모두 진정한 회심은 한평생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별적인 모임들은 소그룹으로 진행된다. 모임들은 일주일 이상 진행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포함하기도 한다. 두 프로그램을 통해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 이것들은 모두 관계중심적이고 타인을 판단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산타바바라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공고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산타바바라 한인장로교회는 아름다운 해변도시 산타바바라의 여러 대학캠퍼스들 사이에 위치해 있는 신앙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을 따라 교회를 사랑으로 목양하며, 지역사회 선교와 차세대 목회에 비전이 있으신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 자격** -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로 목회 경력5년 이상인 분
- 합법적인 미국 체류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는 분
- 정규대학과 본 교단(KAPC)이 인정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으로, 현재 본 교단 소속이거나 혹은 본 교단에 가입할 수 있는 분
- 한국어와 영어 모두 사용 가능한 분
- 영어 설교 가능한 분 우대

- 1차 제출서류** - 한/영 이력서(추천인 2인의 직분 및 연락처 포함)
- 자기소개서2쪽 이내
- 목회계획서2쪽 이내
- 최근 설교2회에 대한 원고 및 음성 혹은 동영상 (신약과 구약 각 1 편씩)
- 사모 자기소개서
- 가능하신 분에 한하여 영어 설교 음성 혹은 동영상 1편
- 제출 기한 : 2019년 9월 21일까지

- 2차 제출서류** - 신학대학원 학력증명서 각 1부
- 목사안수증명서 1부
- 추천서2부
- 사역하시는 교회의 최근 1개월 간의 주보

* 접수 및 문의는 e-mail 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 제출처: sbkpc2019@gmail.com
- 설교 음성 및 동영상은 homepage link, Dropbox, iCloud, Google Drive등을 통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타바바라 한인장로교회 청빙위원회
4595 Hollister Avenue, Santabarbara, CA 93110
www.sbkpc.org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초드하리 브힐(Chodhari Bhill)

초드하리 브힐족은 대체로 인도 서부 구자라트(Gujarat) 주의 남동쪽에 위치한 브로치(Broach)와 당스(Dangs) 지역에 거주한다. 그들은 다시 5개의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같은 계급끼리 통혼관계를 유지한다. 다른 브힐족과 마찬가지로 초드하리족 또한 라지푸트족(Rajput)과 연관되어 있다. 초드하리 브힐족은 브힐언어의 하나인 초드리어(Chodri)를 사용한다.



오래 전 구자라트주의 문화적 풍요는 주변지역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구자라트는 수년에 걸쳐 연례적으로 지역 정벌에 나섰던 마라타 족(Maratha)의 목표물이 됐다. 결국 경제적 이익을 노린 모슬렘들이 수라트(Surat) 부근 지역을 요새화 했으며, 모굴(Mughal) 왕조시대에 이르러 이슬람 통치자들은 가장 막강한 힘을 행사하게 됐다. 초드하리 종족은 북부 구자라트를 정복한 무슬렘들의 압제를 피해 파바가드(Pavaghad)에서 남쪽으로 이주한 것으로 여겨진다.

1817년경 세력이 확장된 대

영제국이 초드하리 브힐족의 유산을 복구하고자 시도했다.

삶의 모습

초드하리 족은 힌두족의 생활방식을 모방하도록 애쓰면서 그들의 고대 풍습들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상위계급의 사람들과 통혼하거나 가까이 사는 힌두족 사람들의 축제에 동참하기도 한다. 초드하리족은 디비(Devi)라는 힌두 여신을 신봉한다. 이 여신은 사람들에게 도덕적, 사회적 개혁, 채식주의자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건강생활 전반에 걸친 개혁을 가져다준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들로 인해 자연의 모든 산물은 신에 의해 창조됐으므로 식용으로 삼아도 무방하다고 가르치는 사겔라(Sargelas) 집단 안에 분열이 생겼다. 사겔라는 초드하리족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초드하리들은 자유롭게 육식을 한다.

초드하리 사람들은 공격적이지 않으며 오로지 사냥을 위해서나 강도 혹은 야생동물들의 습격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만 무기를 사용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정직하고 꾸밈이 없으며, 단순하고 호감을 갖게 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초드하리 사람들은 소규모 농부들로서 면화, 채소, 쌀 등을 주로 재배한다. 이 농작물들을 주마다 열리는 장으로 운반해 옷가지들, 연장들 그리고 장신구들과 교환된다. 보조식품들은 사냥, 낚시 그리고 삼림 부산물들을 모으는 것으로 충당된다. 여자들과 어린이들 역시 부유한 지주들에게 고용돼 생산에 종사한다. 목수나 직조공 등의 초드하리 전문가들은 농업종사자들보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을 영위한다.

관습적으로 초드하리족은 동족끼리만 (계급이 다를지라도) 결혼하며, 직계씨족이 아니라도 결혼은 허용된다. 대부분 일부일처제이며 부계혈통 사회다. 혼전 성관계를 맺는 것이 초드하리족에서는 통상적이다. 결혼하기 원하나 신부대(bridal price)를 지불할 수 없는 젊은 쌍들 사이에서는 여자가 결혼할 남자에게 "기꺼이 납치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들은 수개월 후에 귀가해 그들의 결합을 인가받는다.

사춘기 전까지 초드하리 소녀들에게는 서양식 복장이 허용된다. 여인들은 붉은 바탕에 흰 줄무늬가 있는 사리를 입는다. 그들은 또한 검색과 흰색의 머리두건을 두른다. 초드하리 남자들은 통상적으로 "간디" 모자를 쓰는 것으로 특별히 구별된다.

신앙

초드하리 브힐족 가운데 95% 가량이 정령숭배와 조상숭배와 같은 전통종교 신앙을 따른다. 죽은 사람을 위해 추모 비석을 세우고 언덕의 신들, 구름과 바람의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또한 회오리바람, 천둥, 번개와 지진을 메타(Mehta)라고 알려진 신이 일으킨다고 믿어 메타신을 섬긴다. 그들은 메타가 바다, 강둑 그리고 동물들 속에 산다고 믿는다. 자연사 이외의 죽음 또는 폭력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의 혼령은 마녀의 몸을 갖게 된다고 믿기도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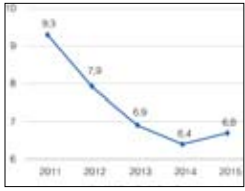
초드하리족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절실히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지녀양육 중요" 미국인, 20년전보다 16%p 감소

애국과 종교, 자녀양육 등을 중시하는 미국인들이 20년 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고 나타났다. 26일 공개된 웰스트리트저널과 NBC뉴스의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요한 가치라고 답한 미국인들의 비율은 20년 전에 비해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2011 2012 2013 2014 2018

1998년에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는 애국, 종교, 자녀 양육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 미국인의 비율이 과반을 훌쩍 넘긴 바 있다. 하지만 올해의 여론 조사에서 애국과 종교, 자녀 양육이 미국인들의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후퇴했다.

애국을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1%로, 1998년 당시보다 9%포인트 줄었고, 종교는 12%포인트 줄어든 50%, 자녀 양육은 16%포인트 줄어든 43%였다.

이런 변화는 50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애국과 종교,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크게 달라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5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애국을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0%에 가까웠지만 밀레니얼과 Z세대를 이루는 18-38세 연령층에서는 42%에 그쳤다. 또한 5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3분의 2가 종교를 매우 중시한다고 답했지만 18-38세 연령층에서는 그 비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했다.

웰스트리트저널은 사회의 다양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그 구성원들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선거와도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대선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향한, 통합된 메시지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과반의 응답자는 경제상황에 매우, 혹은 다소 만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3분의 2는 후세대가 현대보다 더 풍족해질 것으로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가치관을 둘러싼 세대차는 민주당 지지 계층에서 더욱 현저했다. 50세를 넘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가치관은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갖는 젊은 계층보다는 오히려 같은 연령대의 공화당 지지 계층에 더욱 동조하고 있었다.

미, 지소미아 종료에 미군 위협까지 거론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한국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이 결정은 한국 방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미군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이 트위터에 올린 글은 단 두 문장이다. 그러나 그 짧은 글에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재차 담았다.

특히 오테이거스 대변인이 이번 트위터 글에서 미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지소미아 종료가 한국 정부의 결정이지만 한국과 일본에 각각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주둔해 있기 때문에 미국 문제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미국이 당사자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물밑에서 한국에 지소미아 재개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소미아 문제를 이유로 들면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트위터 글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이 이 글을 올린 시점은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인 25일 오후 2시15분이다. 국무부 대변인이 휴일 오후에 트위터에 지소미아 종료 관련 글을 올린 것은 이례적이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개인 트위터 계정이지만 혼자 생각이 아니라 미국 국무부의 비공식적인 입장을 전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주한 미국대사관은 7시간 정도 뒤인 26일 오전 10시33분 한국어로 번역해 이 글을 리트윗한 부분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미 대사관 측에서 한국 국민들에게 이 내용을 직접 전하고 싶어 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 보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나의 아주 좋은 친구"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출했던 것과는 달리 신중한 스탠스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막기 위해 노력했던 국방부와 국무부 당국자 레벨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 美에 750억달러 규모 보복관세 부과 발표

미국이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도 이에 맞서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척위원회는 5천78개 품목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지난 23일 전했다. 관세세척위원회는 제품에 따라 세율은 10%, 5%로 나눠 부과할 것이며, 부과 시점은 각각 9월1일, 12월15일부터라고 설명했다.

5078개 품목 중에는 미국산 원유와 대두(大豆)도 포함됐다고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관세세척위원회는 또 별도의 발표를 통해 관세 면제 대상이던 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12월 15일부터 각각 25%, 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회복 조치는 75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과 별도로 이뤄졌다.

관세세척위원회는 이번엔 관세 부과 대상이던 제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관세 부과 리스트 면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심

사 신청 방법에 관해서는 추후 별도의 공지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관세세척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일반주와 보호주에 대응해 다자 무역체제와 중국의 합법적인 권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중국 해관법과 대외무역법, 수출·입 관세 조례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말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양국 간 고위급 무역 협상이 뚜렷한 돌파구를 얻지 못하고 끝나자 곧바로 약 3천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날 13일 다시 휴대전화, 노트북(랩톱), PC모니터 등 정보통신(IT) 제품의 경우 관세 부과 시점을 9월 1일이 아닌 12월 15일로 늦추고도 발표했다.

사그리들 줄 모른다...홍콩시위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26일로 79일째를 맞으며 2014년 '우산 혁명'을 넘어서는 장기 민주화 시위가 될 전망이다.



우산 혁명은 2014년 9월 28일부터 79일 동안 대규모 시위대가 홍콩 도심에 점거한 채 홍콩 행정장관 완전 직선제를 요구한 민주화 시위다. 우산 혁명은 당시 시위대가 우산으로 경찰의 최루액 등을 막아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산 혁명은 79일째 되는 날 홍콩 정부가 강제 진압에 나서면서 무너졌지만, 송환법 반대 시위는 79일째를 맞아서도 시위 동력이 전혀 사그라지지 않은 채 더욱 격렬해질 조짐마저 보인다.

이는 홍콩이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뒤 일어난 최대 규모 시위였으며, 그 다음 주인 16일 시위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200만 명이 모였다. 25일 환안 지역에서 벌어진 시위가 경찰의 실탄 경고사격과 물대포 차 투입 등 경찰과 시위대 간 격렬한 충돌로 끝나자 26일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비난의 포문을 열고 나섰다.

특히 관영 신화통신은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鄧小平)이 생전에 "홍콩에서 동란이 일어나면 중앙정부가 관여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면서 홍콩에 대한 무력개입을 강하게 시사했다.

신화통신은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과 중군법에 관련 규정이 있으며, 홍콩에 대한 개입은 중앙정부의 권력일 뿐만 아니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인민일보 해외판과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24일 홍콩 인근 도시인 중국 선전에서 덩샤오핑의 115번째 탄생일을 기념해 열린 전문가 좌담회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리아 탐 전국인민대표회의 홍콩기본법위원회 부주임은 좌담회에서 "인민해방군 홍콩 주둔군은 허수아비가 아니다"라며 "필요하면 질서를 회복하고 '일국양제'를 수호하기 위해 당연히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매체의 이 같은 강력한 '경고'에도 홍콩 시위대는 조금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앞으로 더 큰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환법 반대 시위를 주도해온 재야단체 민간 인권전선은 지난 18일 170만 명이 참여한 빅토리아 공원 집회에 이어 오는 31일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이날은 지난 2014년 8월 31일 홍콩 행정장관 간접선거제를 결정한 지 5년째 되는 날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과 영국은 홍콩 주권 반환 협정에서 2017년부터 '행정장관 직선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중국 의회적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는 2014년 8월 31일 선거위원회를 통한 간접선거를 결정했다. 이에 반발해 일어난 것이 바로 '우산 혁명'이다.

이처럼 상징성이 큰 31일 집회에서는 지금까지 시위대가 최우선 요구사항으로 내세운 송환법 완전 철폐 외에 '행정장관 직선제'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더구나 민간인권전선이 예고한 31일 집회와 행진 경로로 인해 또 다른 충돌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마존 밀림이 타들어간다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화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극우 성향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아마존 파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3주째 이어진 화재로 아마존에서 멀리 떨어진 대도시 상파울루가 시커먼 연기로 덮이는 일도 벌어졌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엉뚱하게도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NGO)가 아마존에 불을 내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해 논란을 일으켰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는 21일 보고서에서 올해 1월부터 아마존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가 3만9194건으로 집계됐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77% 늘어난 수치다. 목초지, 경작지 개척을 위해 우림에 인위적으로 불을 내면서 화재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브라질 전역을 기준으로 하면 7만4155건으로 지난해보다 84% 늘었다.

특히 지난달 말 아마존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아마존과 인접한 북부 혼도니아주, 마투로주, 파라주, 아마조나스 주 등 곳곳으로 피해가 번져 나가고 있다. 지난 19일에 검은 연기가 아마존에서 2700km 떨어진 상파울루를 덮쳐 한낮인데도 밤처럼 사람이 어두워지는 일이 벌어졌다. 아마존 인근 지역에서는 호흡기 질환을 앓는 주민이 늘었다. 연기에 섞여 검게 변한 빗물이 내린 곳도 있었다. INPE는 화재로 1분당 축구장 1.5배 면적의 우림이 잿더미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환경단체들은 화재 증가 책임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 개발이 주권적 권리라며 환경 파괴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자신은 '전기톱 대장'으로 지칭하며 환경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유럽 국가들과 외교적 마찰을 빚었다. 이달 초에는 INPE의 화재 관련 통계가 거짓이라며 책임자를 해임하기도 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이런 행동이 아마존 우림의 무분별한 파괴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도리어 NGO가 아마존에 불을 났다고 주장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NGO가) 나와 브라질 정부를 깎아내리기 위해 범죄 행동을 저질렀다"며 "정부는 불길을 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브라질 환경보호연연구소(Proam) 카를루스 보쿠이 소장은 "NGO가 아마존에 불을 지르고 있다니 터무니없다"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세계자연기금(WWF) 등 환경단체들은 아마존 파괴가 계속될 경우 이 지역이 나무 없는 대초원으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마존이 초원이 될 경우 산소 생산이 이뤄지지 않고 반대로 온난화 유발 물질인 이산화탄소를 내뿜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인간 중심

역사는 결코 반복되지 않는다. 성경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윤회설을 거부한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 속에 유사한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사실은 인정한다. 구약 역사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좋은 실례가 될 수 있다. 이전 역사와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맞아 등장하는 사람들에게서 과거 조상들의 관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 인간의 부패가 지닌 심각성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간섭을 증오하고 구속을 벗어나 자율적인 삶을 살고자 욕망이 인간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있다. 각 시대마다 표현된 모습은 다를지라도, 결국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담의 태도가 역사의 순환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중세 가톨릭교회의 타락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전통과 세속적 힘이 지나치게 중시되면서 하나님의 관심과 전혀 다른 방향의 모습을 취하게 되었다. 인간중심이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하는 궁극적 목적을 상실하게 하였다.

르네상스는 14-16세기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문예부흥운동을 말한다. 르네상스는 중세시대의 막을 내리는 역할과 함께 16세기 종교개혁의 원동력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인문주의가 있다. 즉, 르네상스는 과거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꽃을 피운 인간중심의 정신을 되살리려는 시대적 운동이었다.

르네상스의 중심에는 '휴머니즘' 즉 '인문주의'가 있었다. 어원적으로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다. 하나는 인간이다. 인간을 근본으로 한다는 표현이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사람을 자체 또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 이론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인문주의란 특정한 방식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주도하던 휴머니스트 사이에 발견되는 독특한 이념이었다. 그들은 학술, 문화, 교육 운동을 주도하면서 고전적 맥락에서 재발견한 인문주의가 지닌 가치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중세시대에 대학에서 가르쳤던 법학, 신학, 의학과 같은 전통적 학과가 다루지 않았던 중요한 내용을 지니고 있었다.

자율성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Socrates, 470-399 BC)가 지녔던 고민의 핵심과 유사하다. 그는 인간이

이성을 사용하여 자연세계를 구성하는 원리와 운행의 원리를 밝혀내는 자연철학자들에 대해 반감을 가졌다. 그는 자연철학자들이 일관성이 결여된 채로 현상을 넘는 실재에 대해 동일성을 탐구하는 것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그 대신 소크라테스는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이 어떤 삶의 목적을 지니고 있는가? 올바른 삶의 방향에 관한 지식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쏟았다. 즉 인간의 행위와 삶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중세교회가 지녔던 핵심적 문제를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벗어난 것이었다고 이미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교회가 영적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할지

운 인간을 이상형으로 삼는 것이다. 이는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인간의 모습으로, 특정한 기술에 능통한 것보다 도덕성을 중요시 여기는 이상적 기준에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키케로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이 가장 우상시 하였던 인물이 있다.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병합을 시도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106-43 BC)이다. 헬라철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여러 학파들 사이에 치열한 철학논쟁이 벌어지던 시대에, 키케로

간을 인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아는 것을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었다.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부흥이 근대적 가치를 지니고 새롭게 나타난 것이 르네상스 인문주의였다.

페트라르카

그렇다면 르네상스의 시작 인물은 누구일까? 이미 앞서 소개한 '신곡'의 저자 단테(1265-1321)를 먼저 생각할 수 있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그의 거침없는 '인간중심'의 사고가 파격적이었음에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엄격한 의미에서 '인간중심'의 사

였으나,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부친의 사망 후 인문주의 학자 및 작가가 되었다.

단테에 이어 이탈리아가 낳은 최고의 시인으로 명성을 날렸다. 특히 서정시집 '칸초니에레(Canzoniere)'는 그의 대표작으로, 평생 짝사랑했던 라우라에게 바친 시를 모아놓은 것이다. 그녀는 1384년 흑사병으로 인해 사망한다. 그녀의 생전과 생후로 나눌 수 있는 이 작품은 한 여인을 향한 불타는 사랑의 마음을 자연과 고전을 인용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암흑기

페트라르카의 다른 특징은 그가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가장 처음 구입하여 읽었던 책이 어거스틴의 '신곡론'이었다. '나의 비밀'이란 책에서는 어거스틴과 가상 대화를 하는 내용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는 평생 그를 존경하게 되었으며, 페트라르카는 분명 중세 가톨릭 교회에 속한 신앙인이었다. 단지 어거스틴의 책을 손에서 떼지 않았던 만큼 신앙적인 관심을 지니고 있었으나, 세속적 쾌락을 이기지 못하고 2명의 사생아를 낳기도 하였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정결한 삶을 강조하였던 어거스틴의 교훈이 그에게 갈등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그는 고대 로마 인문주의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그는 로마고전과 기독교가 상충하지 않는다고 확신하였다. 그는 자신의 글에 로마시대 인물의 글과 로마신화를 인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 비친 중세는 어떠하였을까? 그는 로마시대에 비해 중세시대의 문명수준이 질은 어둠속에 잠겨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로마의 인문주의 사상이었다. 그는 고대문학에 대한 도서를 수집하였다. 수많은 책들을 편집하고 번역하였다. 그에게 확신이 있었다. 고대 인문주의자들이 지녔던 신념에 동참하는 것이, 곧 중세의 어둠을 몰리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한 것이다. 중세 말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인간중심'의 사고가 새롭게 소개되었다.

페트라르카는 실용적인 사람이었으나, 결코 종교적이지 않았다. '인간중심'의 사상과 작품을 통하여 명성과 행운을 취하려는데 목말라있던 자였다. 중세교회에 담뿍고 있었으나 자신의 죄에 대하여 몰두하는 것을 소모라 생각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그는 세속적 교인이었다. 그는 결국 향후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의 모범이 되고 말았다.

covenantcho@yahoo.com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 (43)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르네상스 중심에는 '휴머니즘' 즉 '인문주의' 있어 교육과 훈련 통해 '전인적 인간' 되는 것이 목표

라도, 그들이 지켜온 전통과 의식은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 즉 개혁이 필요할 정도로 심히 타락한 교회였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상태는 아니었다. 신학이 스콜라 철학과 접목되어 중세말기에는 추상적이며 사색적인 학문으로 전락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성의 무게를 더욱 중시하였던 중세말기 신학자들도 아직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란 울타리를 안에 놓여 있었다.

그렇지만 르네상스의 원동력이었던 인문주의에서 발견되는 '인간 중심'은 매우 다르다. 르네상스는 인간성 해방을 위한 혁신운동이었다. 그들이 고대 그리스에서 시행된 교육이 지녔던 삶의 방식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헬라인은 자신이 가지 최고의 기준이라고 확신했다. 자율성은 교육의 목적, 또는 교육을 통한 완성된 인간의 목표였다.

르네상스인의 자극했던 고전적 인문주의가 추구했던 인간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 교육과 훈련을 통해 소위 '전인적 인간'이 되는 것이다.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갖춘 인간을 말한다. 육체적으로 성숙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정신적 능력을 갖

게 해성같이 나타나 로마와 헬레니즘이 복합된 '고전 인문주의'를 정리한 것이다.

키케로가 기원전 62년에 저술한 '시인 아르키아스를 변호하여'라는 연설문을 잠시 살펴보자. 위에 언급한 헬라 사회의 '인간중심'의 교육을 지칭하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라틴어로 번역한 것을 이 연설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와 친숙한 영어 단어인 휴머니즘(humanism)로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시대를 열어준 강력한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키케로가 원했던 것은, '휴머니티스'를 통해 로마시민들이 전인격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이었다. 특별한 기술에 뛰어난 인재보다 이상적인 인간성을 갖춘 사람의 모습을 중시하였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일에 공통적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끄는 사회를 추구한 것이다. 직업이 달라도 인간답게 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사회구성원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준다고 확신했다. 이것이 르네상스시대의 정신의 기초인 인문주의가 지닌 특성이었다. 그들은 인

상을 지닌 자가 아니었다. 도리어 '하남인중심'과 '인간중심' 사이에서 갈등하던 인물로 분류될 수 있다.

진정한 르네상스의 문을 연 인물은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Francesco Petrarca, 1304-1374)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는 키케로를 자신의 부친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고대 인문주의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1345년 키케로의 서한문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키케로와 같은 역사적 인물들에게 편지를 기록하여 후대에 남겼다. 로마의 시인 이었던 베르길리우스(Vergilius, 70-19 BC)를 형제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즉 그는 약 15세기라는 시간적 공간을 뛰어 넘어 고대 인문주의자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페트라르카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출발지인 피렌체(Firenze, 영어표기 Firenze) 출신이다. 단체의 친구였던 그의 아버지가 1302년에 정치적 이유로 피렌체에서 추방되었다. 페트라르카는 부친을 따라 이사를 다녔다. 그러던 중 교황청이 있었던 프랑스 아비뇰에 가까운 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부친의 요구에 따라 몽펠리에와 볼로냐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

Worldwide church directory including: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목양장교회, 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뉴욕새별장로교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뉴욕센트럴교회, 뉴저지성도교회, 리빙스톤교회, 빛과소금교회, 주미전교회, 퀸즈장로교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칠레 한인연합교회, 토론토 가든교회, 하와이 행복교회,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

리더십 코멘터리 (95)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시행착오를 통해 소명을 이루어가는 습관을 갖자

새로운 사람을 만나 교체하는 습관을 가져라

삶의 모습은 달라도 사람들은 습관의 노예로 살아가다. 습관은 마치 밧줄과 같아서 인간은 밧줄의 가닥을 매일 짜고 엮으며 결국에는 끊을 수 없는 굵은 습관의 밧줄을 만들어 간다.

습관적인 행동을 했을 때에 유발하는 신호와 보상 그리고 습관에 따른 반복행동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나쁜 습관을 변화시킬 모든 준비가 갖춰진 것이다.

리더가 습관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세상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옛사람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한 것이다.

시행착오를 통해 소명을 이루어가는 습관을 갖자

치열한 경쟁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중요하다. 사람에게 친절하고 공감대를 잘 형성하는 리더는 이웃을 감동시켜 자기편으로 이끄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세상에는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다. 헌신하는 사람(다른 이를 돕는 것이 우선인 사람), 받는 사람(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 그리고 연결해주는 사람(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동등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들이다.

헌신하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리더십 발휘 실패를 '다음단계를 향한 징검다리' 로 이용

은 습관을 말한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행하는 일 가운데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고 가끔씩 새로운 사람을 만나 교체 나누며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받고 창조적인 마인드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더가 되길 소망한다.

습관이 삶을 좌우한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리더로서의 자신을 되돌아보면 삶의 많은 부분이 습관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습관은 '행동, 삶의 길, 삶의 방향'으로 해석되는데 여기서 습관이라는 말속에는 '판단, 심판, 권리' 등의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

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리더의 습관이 세상을 바꾼다.

리더가 되려면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탁월한 리더가 되려면 시행착오를 통해 소명을 이루어가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세상일이란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다.

인생에서 실패는 두 가지 방향으로 아주 강력하게 작용한다. 한 가지는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교훈이자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절대 모험을 하지 않도록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sondongwon@gmail.com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위글스(weagles)

시대가 흐르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은 놀랍게 바뀌어가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렇게 바뀌는 의식이 변화보다는 변질이라는 점이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반복일변도로 변질되고 나라와 나라의 이해도 일축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도(道)와 예(禮)는 접어두고라도 일반상식마저 통하지 않는 안하무인의 세상이 되어가는 중이다.

세상은 점점 세계화란 글로벌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중이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상호연동이 되어간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을 금지하는 첨단소재들은 단순히 한국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위글스라는 생소한 단어는 현대와 같은 시대에 매우 공감이 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외침이기 때문이다.

느낀의 아들 여로보암의 악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처럼 사람의 역사는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러기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롬3:9)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다.

초대교회 때부터 말세의 논쟁이 시작되었으니 말세의 기준은 애매하지만 2019년인 지금 이 세상은 찌들대로 찌들어 있다. 노아의 시대보다 더 최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위글스(weagles)! 선택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차별을 없애자는 외침은 그래서 신선하기조차 하다.

세계가 글로벌이 되고 내가 우리가 되는 하나 되는 현상은 좋은 것이지만 언어가 통일 된 바벨탑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창조에 위배되지 않으며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은 인간존중의 또 다른 외침인 까닭이다. 위글스!

hanmac@cmi153.org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Includes a grid of church listings with names, addresses, and contact info, plus a sidebar for '감사한인교회' and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동부교계 게시판

east

뉴저지목사회 제10회기 시무감사예배 및 이취임식
뉴저지목사회(회장 유병우 목사) 제 10회기 시무감사예배 및 이, 취임식이 9월 18일(수) 오전 10시 소망장로교회(담임 박상천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01)592-6004

열방교회 DNA 목회자 세미나
열방교회 DNA 목회자 세미나가 9월 16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뉴욕그레이트네교회(담임 양민석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임제택 감독(대전열방교회 담임). 뉴욕교협과 뉴욕목사회, 연합감리교회 뉴욕연회 한인목회자 코커스가 공동주관한다. 교재 제공을 위해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문의: (917)361-5813, (718)887-1518

이병홍 목사 은퇴식
새가나안교회를 개척하고 36년을 시무해온 이병홍 목사 은퇴식이 9월 22일(주일) 오후 5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문의: (718)213-1985

뉴욕그레이트네교회 예수 DNA 부흥회
뉴욕그레이트네교회(담임 양민석 목사)가 9월 13일(금)부터 15일(주일)까지 예수 DNA 부흥회를 갖는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강사는 임제택 감독(대전열방교회 담임). 금, 토 오후 8시, 토 오전 5시30분, 주일은 오전 10시45분과 오후 1시30분.
▲문의: (718)887-1518, (917)361-5813

뉴욕수정성결교회 부흥회 및 자녀교육 세미나
뉴욕수정성결교회(담임 황영송 목사) 가을 부흥회가 9월 6일(금)부터 8일(주일)까지 열린다. 강사는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담임). 6일 오후 8시, 7일 오전 5시, 오후 8시, 8일 1, 2부 예배시간. 한편 동 교회는 장혜영 사모를 강사로 자녀교육 세미나를 갖는다. 일시는 9월 10일(화) 저녁 8시,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 9월 11일(수) 오전 10시 “엄마 마음 크기가 아이 인생 크기를 만든다”
▲문의: (718)461-9800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 제 6회 정기 연주회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 제 6회 정기 연주회가 “위싱 예배 무용” 주제로 9월 29일(주일) 오후 6시 30분 퀸즈칼리지 레프락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총연출/안무 최윤자, 터너 박성덕 출연. 공연 수익금은 싱글맘들을 후원한다.
▲문의: 문의: (646)427-4828

뉴욕마하나임선교교회 한글문화학교
2019학년 뉴욕마하나임선교교회(220 Berry Hill Rd. Syosset, NY 11791) 한글문화 학교가 9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13주간 동안 매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이며 등록비는 50달러(교재비 별도, 점심식사 제공). 11월 30일 추수감사절 토요일은 휴교한다. 이메일 mahanaimkms@gmail.com
▲문의: (929)281-4560 김진철 한글학교 디렉터

뉴저지미주총신 제 1회 학술세미나
뉴저지미주총신대학교선교대학원 특강 및 제 1회 학술세미나가 9월 16일(월)부터 18일(수)까지 주예수사랑교회(담임 강유남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서철원 박사.
▲문의: (201)983-1042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자!”

뉴욕장로연합회 제7차 다민족선교대회

뉴욕장로연합회 연례행사인 다민족선교대회가 지난 8월 25일 지역 5시부터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렸다. 올해로 7회를 맞은 이 대회는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자!”라는 주제로 허연행 목사(프라미스교회 담임)를 강사로 진행했다.

회장 김영호 장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뉴욕이라는 대 도시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세계선교에 앞장 서는 것이 이 대회의 목표”라며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처럼 전도와 선교의 현장이 이 시간 이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오늘 행사는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있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1부 예배는 정민국 장로 인도로 프라미스교회 찬양팀의 찬양과경배, 대회사 및 기도 김영호 장로, 찬양 뉴욕권사선교합창단, 설교 허연행 목사, 헌금 기도 박해림 목사, 축도 정순원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허연행 목사는 “빛진 자의 심



뉴욕장로연합회가 주최한 제7차 다민족선교대회에서 중국팀들이 찬양하고 있다.

정으로”(롬1:13-15)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빛진 자의 심정으로 로마 선교를 했던 것을 소개하고, 우리도 이런 빛진 자의 심정으로 사명을 감당하자고 전했다.

허 목사는 “크리스천들은 어마어마한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며 “첫째, 주님께 큰 빛을 졌다. 우리가 져야 할 죄의 대가를 주님이 대신 지셨다. 둘째, 우리를 그리스도께 안내해 준 사람,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힘들고 낙심할 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었던 분들. 그리고 또

빛진 그룹은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한 영적 이방인들이다. 저들에게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해주셨다”고 말하고 “뉴욕 안에 4백여 민족이 살고 있으며 187개 언어가 사용된다. 세계가 이미 뉴욕에 와 있다. 남은 생애 빛을 열심히 갠으며 살자. 뉴욕으로 우리를 옮기신 하나님의 갠으신 뜻을 이뤄드리는 모두가 되기



CBSN찬양선교단이 미동부찬양투어 중 버스킹을 하고 있다.

“제물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 찬송”

CBSN찬양선교단 미동부찬양투어 해단감사예배

뉴욕기독교방송(CBSN·사장 문석진 목사) 찬양선교단(지휘 이선경 교수)이 8월 20일 오후 8시 뉴욕평화교회(담임 임병남 목사)에서 미동부찬양투어 해단감사예배를 가졌다.

찬양선교단은 지난 8월 6일 미동부찬양투어 발대예배를 갖고 8월 13일부터 뉴욕을 출발해 워싱턴 링컨기념관, 한국전 참전기념관, 루레이동굴 등에서 버스킹(길거리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관광객들에게 전도지를 주며 전도했고 워싱턴하늘비전교회(담임 장 목사)에서의 찬양음악회, 아미쉬마을 버스킹 등의 찬양선교와 전도를 모두 마치고 15일 돌아왔다.

해단감사예배는 이선경 교수 인도로 신양고백, 박사라 집사의 기도, 그레이스황의 특송, 문

석진 목사의 말씀, 김지나 권사, 문주에 집사, 고금란 집사의 소감발표(간증), 김경열 목사(뉴욕영안교회)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문석진 목사는 ‘항소보다 찬송’(시69:30-31)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바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린다”며 “앞으로도 찬양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CBSN찬양선교단이 되기를 축원한다”고 전했다.

이날 간증자들은 “우리의 찬양과 전도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길 바란다”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기사제공: CBSN)

한국교회 희망되길...기도 당부

한장총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환영 및 조찬기도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이하 한장총)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환영 및 조찬기도회가 8월 24일 오전 8시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렸다. 지난해 7월 뉴욕에서 열린 한장총 미주동부지역연합회 창립총회가 열려 박태규 목사가 지회장에 취임한 바 있다.

집회는 김진화 목사(미동부지역연합회 사무총장) 사회로 대표회장 소개 박태규 목사(지회장), 환영사 송병기 목사(뉴욕교협 증경회장), 대표기도 이준성 목사(뉴욕목사회 부회장), 말씀 송태섭 목사(대표회장), 합심기도, 축도 정순원 목사(뉴욕교협 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합심기도는 김희숙 목사가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부흥을 위해”, 김경열 목사가 “한국 정치 안정을 위해”, 허윤준 목사가 “뉴욕교계와 목회자를 위해” 통성합심기도를 인도했다.
한장총 대표회장 송태섭 목

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2부 찬양과 미션 나눔은 박 마이클 목사 사회로 한국, 중국과 대만, 자메이카, 러시아 회중들이 순서를 맡아 공연했다. 한 인교회에서는 뉴욕밀알선교합창단(단장 이다니엘),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단장 최윤자), 한국교전선교무용팀(감독 박원희) 등이 출연했다.

중국과 대만에서는 Global Church for All(박마이클 목사), NY Chinese Christian Choral Society and Chorus of Harvest Church of NY(리더 피터용), 러시아에서는 All Nation Baptist Church Choir(레오나드김 목사), 자메이카에서는 New York City Harvest Army Chorale(Mckoy 목사), 다민족으로 Flushing First Church of Nazarene(박해림 목사), Shining Star Steel Band(리더 Roy Gomes) 등이 출연했다.

한진영 선교사의 간증도 있었으며 공연에 참가한 다민족 팀들에게는 선교후원금이 전달됐다.

(유원정 기자)



한장총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환영 및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N세대 위한 소명캠프, 직업 찾기 캠프

낮은올타리 미주본부&필라지부 주최, 강사 신상언 선교사

낮은올타리 미주본부(대표간사 조희창 목사)와 필라델피아 지부(지부디렉터 박가석 사모)는 N세대의 소명(Calling)과 천직(Vocation) 찾기를 돕는 직업 찾기 캠프를 지난 8월 8일부터 2박3일간 뉴저지 양지수양관에서 열었다.

이번 캠프는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케네디컷, 메릴랜드 등 미동부지역의 14개 교회 46명의 다음세대와 리더, 부모, 사역자들이 참여해 진행됐다. 강사는 한국 등 여러 도시에서 이미 직업 찾기 캠프를 해온 낮은올타리 대표 신상언 선교사가 초청됐다.

이중언어로 진행되는 캠프를 위해 통역은 낮은올타리 캠프 리더로 오랫동안 섬겨온 조이리 변호사가 맡았으며, 찬양인도는 크리스틴 한 전도사가 맡았다. 그 외 현직교사 및 전도사 등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전문가들이 각 그룹의 리더를 맡

아 섬겼다.

강의와 예배, 찬양과 기도의 시간, 소명을 주제로 한 팀별 영화 만들기과 영화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캠프디렉터 조희창 목사는 “이번 캠프는 다음세대들에게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달란트와 소명, 천직을 발견하도록 돕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진행됐다. 여러 교회에서 모였지만 금방 친해져서 서로를 챙기며 열심히 강의 듣고, 영화를 만들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아이들의 모습에 참 감사했다. 특별히 잘 준비된 리더들이 각 그룹원들을 잘 멘토링하며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고, 이끄는 모습에, 아이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뛰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계속 소명과 천직(Vocation)을 따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낮은올타리는 한국의 서울과 부산, 미국의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버지니아, LA, 시애틀, 호주 시드니, 남미 페루 등 전 세계에 15개의 본부와 지부가 있다.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으며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을 통해 다음세대 부흥과 가정과 문화의 회복을 이루어 가고 있다.

▲캠프 및 사역문의: (646)300-4790 미주본부. www.wooltari.com (기사제공: 낮은올타리 미주본부)



낮은올타리 직업찾기 캠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퀸즈장로교회 여름음악캠프 발표회를 마치고 참석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기념촬영 했다.

퀸즈장로교회 여름음악캠프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여름음악캠프가 지난 8월 20일부터 진행돼 23일 오후 2시 발표회를 가졌다.

발표회에 앞서 말씀을 전한 김성국 목사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악기와 친숙해져 재질을 조기 발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함께 연주함으로써 연합의 훈련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도록” 음악캠프를 지도하고 뒷바라지 한 교사와 학부모들을 격려했다. 킨더가튼부터 12학년까지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열리는 음악캠프는 올해 43명이 참가해 플루트, 첼로, 바이올린, 오보에, 클라리넷 등의 악기를 배우고 이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년에는 연주회 형식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학습에 치중해 연습한 것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플루트(Marry had a little lamb, 콤바야 3중주), 첼로(Canon in D Major, Pachelbel), 오보에(비디오 영상), 바이올린(ode to Joy), 클라리넷(Divertimento Mozart), 바이올린2(F. Schubert Piano Quintet in A Major, D. 667 Die forelle Trout), I. Allegro vivace), 바이올린1(“Prelude” and “Gavotte” from 5 pieces for 2 Violins and Piano by Shostakovich)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선교사자녀 15명에 장학금 수여도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주관 광복74주년 감사예배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민길) 주관 광복 74주년 감사예배 및 선교사 자녀장학금 수여식이 8월 24일 오후 6시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에서 열렸다.

본 연합회 윤우경 이사장 사회로 열린 기념예배는 테너 최원현 씨가 애국가 및 미국국가를 제창했으며 이서 목사(OC 교협회장)가 기도했고 이은향 목사(OC여성목사회장)가 성경봉독 했다. 이어 한기홍 목사(미기총전국기도연대위원회 대표)가 '기도로 나라를 지킵시다'(느1:1-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민길 회장의 인사말, 권태진 목사(한교총 대표회장)의 축사, 샘신 목사(남가주목사회 증경회장)의 국가를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주관 광복 74주년 감사예배 및 선교사 자녀 장학금 수여식에서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위한 기도, 대한민국과 캘리포니아를 위하여 만세삼창을 김근수 목사(OC목사회 회장) 인도로 이날 모인 참석자들이 했으며 양문국 목사(초대 회장)이 축도했다.

이어 열린 MK장학금 전달 수여식은 총무 신용 이사가 장

학금 모금배경 설명 및 선전기준과 진행사항 보고를 했으며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다. 수여식은 자원위원 노정도 목사(폐회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아주사 피셔대학과 한인총동문회가 주최하는 법과교회 세미나 기자회견에서 대평양법률협회 현인덕터 주성철 목사가 설명하고 있다

아주사 한인총동문회 '법과교회 세미나' 연다

9월 9-10일, '당신의 교회는 안전하십니까?' 주제

아주사 피셔대학과 한인총동문회(회장 승광철 목사)가 주관하는 '법과 교회 세미나'가 오는 9월 9일(월)과 10일(화)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든스위트 호텔 뱅캅룸에서 개최된다.

고 강선자 목사를 추모하는 강좌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당신의 교회는 안전하십니까?'란 주제로 열린다.

지난 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승광철 목사(뉴버리팍 브리지교회 담임)는 "세상이 점점 혼탁해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마치 쓰나미가 밀려오듯 막강한 힘과 빠른 속도로 엄습해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회와 목회가 당면하고 있는 법적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세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법과 교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승 목사는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동문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지만 아주사 동문들에 한정하기에는 주제가 너무나도 엄중하기에 한인교회 목회자들 모두에게 오픈하는 것이 좋겠다는 스텝들의 의견이 모여져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주성철 목사(태평양법률협회 한국인디렉터)는 "최근 SB360이 가각됐다. SB360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목회자들이 교인들과 인터뷰 및 상담을 할 때 내용을 모두 주 정부에 보고하도록 돼있는 법안"이라며 "캘리포니아 주법은 생명이 위협되고 아동과 노인들의 학대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이 절대적으로 주 정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그것 이외는 보고하면 안 된다. 이러한 약법이 만들어지게 될 뻔한 내용들은 한인교회가 잘 모른다. 따라서 '당신의

교회는 안녕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주 목사는 "최근 캘리포니아 주교육부에서 통과된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강의로, 총체적인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주요 핵심과 아울러 공립학교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권익과 자녀들을 이런 교육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의하게 된다"며 "미국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달라서 먼저 한인 학부모들이 개념정립부터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 목사는 또 "우리는 공립학교에서 종교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성경도 가지고 갈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성경공부, 예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도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 수정헌법에 근거하면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인론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 목사, 교회 그리고 개인의 권익(브래드 대쿠스, 태평양법률협회 대표) △ 문제 있는 교인 인도방법과 교회안전을 위한 방해자 및 출석자 관리(마이클 페퍼, 태평양법률협회 산타아나오피스 상임변호사) △ 캘리포니아주 성교육 프로그램과 부모권리 및 '공립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길'(주성철 목사) 제목으로 각각 강의한다.

세미나 대상은 목사, 전도사, 교회리더들로 70명 선착순으로 참가신청을 받는다. 등록비는 30달러(교재 및 점심식사 제공).

▲문의: (661)610-9392, (213)407-1710

<박준호 기자>

스칼라심포니오케스트라 2019 콘서트나이트

스칼라심포니오케스트라(대표 박윤재, 뮤직디렉터 김용재) '2019 콘서트나이트'가 21일 오후 7시30분 지퍼홀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은 남가주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해온 프로페셔널 오케스트라 LA시니포니에타(LA Sinfonietta)가 스칼라 심포니 오케스트라(SCALA Symphony

Orchestra)로 새롭게 탄생하며 마련한 공연이다. 공연은 피가로의 결혼 서곡을 김용재 뮤직디렉터의 지휘로 시작됐으며 바이올린 윤세인, 플린 이, 제이미 조, 강세민, 케일리 서, 피아노 클레어 리우 등 학생들이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교협 교회갱신 및 이단대책 세미나 남가주교협 교회갱신 및 이단대책세미나에서 김현수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남가주교협 교회갱신 및 이단대책 세미나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한기형 목사)가 주최한 교회갱신 및 이단대책 세미나가 8월 25일 오후 4시 남가주명성교회(담임 정해진 목사)에서 열렸다.

안신기 목사(총무) 사회로 열린 1부 세미나는 김현수 목사(꿈너머꿈교회 담임)가 강사로 참여해 강의했다. 또한 이병상 목사와 지윤자 사모가 특별공연했으며 김성대 목사(부회장)가 축도했다.

2부 합심기도는 김승일 장로(이사)가 △미국사회의 영적회

이어 열린 3부 남북통일 염원 영화상영시간을 가졌는데 추상미 감독의 작품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다함께 관람했다. 다음은 이날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명단이다.

사라강(강현민 키르키르스 탄 선교사), 니나김(김성용 중국 선교사), 애나방, 데이빗방(이상 스캇방 태국 선교사), 정은홍(태국 선교사), 신나라(신영선 태국 선교사), 고결(피터고 태국 선교사), 김주현(고 김대진 필리핀 선교사), 김가희(김영관 필리핀 선교사), 현석호(예능현 필리핀 선교사), 나지인(나정희 탄자니아 선교사), 신윤호, 신윤세(이상 신촌식 인도 선교사), 이에람, 이에림(이상 이재일 세네갈 선교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담임목사 청빙

산타바바라 한인장로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로서 5년 이상 경력의 합법적인 미국체류 신문을 유지할 수 있는 자이며 정규대학과 본 교단(KAPC)이 인정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자로 본 교단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이중언어와 영어설교가 가능한 자다. 제출서류는 한/영 이력서(추천인 2인의 직분 및 연락처 포함), 자기소개서 2쪽 이내, 목회계획서 2쪽 이내, 최근 설교 2회에 대한 원고 및 음성 혹은 동영상(신구약 각1편), 사모자기소개서, 가능한 자에 한해 영어설교 음성 혹은 동영상 1편을 9월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모든 서류는 이메일로, 설교 음성 및 동영상은 homepage link, Dropbox, iCloud, Google Drive 등을 통해 보내면 된다.

▲문의: sbkpc2019@gmail.com

박공서 목사의 성경적 세계관 바로알기

박공서 목사의 '성경적 세계관 바로알기' 세미나가 9월 19일(목)과 20일(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나성삼일교회(1345 S Burlington Ave, LA)에서 열린다. 박공서 목사는 새부전교회 담임이며 예장대신 경안노회 노회장, 풀마틴전도협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CTS기독교TV 특강강사로 국내외 성경적세계관과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다.

▲문의: (213)389-6000

주님세운교회 한국학교 학생모집

주님세운교회 한국학교(2911 Lomita Blvd, Torrance, CA)는 학생모집을 실시한다. 수업시간은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일요일학교는 주일 오후 1시20분부터 4시까지다. 모집대상은 만4세 이상 유, 초, 중, 수필 및 SAT반이며 특별활동으로 동요, 미술, 피아노 기초, 한국역사 반을 운영한다. 등록비는 160달러(년)이며 개학일은 토요일만은 9월 7일 오전 9시30분, 일요일만은 8월 오후 1시30분이다.

▲문의: (310)661-0050, 533-7377, 352-4020

조수아, 김수지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콘서트

남가주웨슬리교회(담임 박해성 목사 375 N. Towne Ave., Pomona, CA)는 찬양사역자 조수아, 김수지 사랑나눔 콘서트를 굿네이버스 주관으로 9월 6일(금) 저녁 8시에 갖는다.

▲문의: (909)397-5737

제 10차 요한계시록 세미나

프레이즈교회(담임 정대철 목사, 2867 1/2 W. 7th St, LA)는 제 10차 요한계시록세미나를 9월 7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갖는다. 강사는 피터정 목사이며 회비는 20달러(식비 및 교재, 사역자들은 무료).

▲문의: (213)446-9015

OC제일장로교회 가을부흥회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규 목사)는 가을부흥회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119:105)'라는 주제로 9월 6일(금)부터 8일(주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장학봉 목사(성안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금-토 저녁 7시30분, 토 새벽 6시, 주일 1부 오전 8시15분, 2부 오전 10시30분이다.

▲문의: (714)891-2029

총신대학교동문 남가주체육대회

총신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회장 김경일 목사)가 주최하는 제4회 총신대학교 동문 남가주체육대회가 9월 16일(월) 오전 10시 예수커뮤니티교회(담임 박경일 목사 15246 Barnwall St, La Mirada, CA)에서 열린다. 참가대상은 총신대학교 대학부, 신대원, 목연, 대학원, 박사원 등 졸업생 및 가족들이다.

▲문의: (213)507-3875, 675-3767



보스턴청우회 _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 뉴리더십_ 강연회에서 김희창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 뉴리더십' 강연회

보스턴청우회, 공동저자 김희창 박사 방문기

보스턴청우회(회장 이재근)는 지난 8월 20일 오후 12시 30분 휴스턴 서울회관에서 이번 8월에 출판된 신간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 뉴리더십'의 핵심내용 설명회와 의견교환을 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은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 뉴리더십'의 공동저자 김희창 박사 방문기회를 이용해 임원들과 함께 모인 것. 이 모임에 참석한 김희창 박사는 "우리 한국의 호국외, 자유대한민국 정신 회복, 이승만의 국제협력 주도 정신, 그리고 한미동맹 협력으로 경제 정

치체 기반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김성문 목사, 해군 중령군목 출신인 김석인 목사, 보스턴청우회 회장과 부회장 등 모든 참석자들은 한결 같이 한인들이 호국외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스턴청우회 배창준 사무총장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애국외의식을 가지고 우리 동포들이 앞장서서 자유대한민국과 미국과 연대협력을 지켜가야 한다"고 상황설명을 했다. (기사제공: 보스턴청우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평강 누리는 시간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 '2019 코랄페스티벌'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회장 오성애 권사) 주최 '2019 코랄페스티벌'이 25일 오후 6시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 목사)에서 열렸다.

오성애 회장은 "지금까지 녀려하고 풍성하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특별히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는 8월에 코랄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오늘 출연하는 모든 교회와 참석한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원한다"고 말했다.

이동을 분회 총무 사회와 김

지훈 목사(동양선교교회 담임) 기도로 시작된 코랄페스티벌은 섯별선교합창단(지휘 오위영), OC미션콰이어(지휘 장진영), 월드 프리이어 여성 코랄(지휘 전현미), LA채리티콰이어(지휘 로이 장), 미주여성코랄(지휘 오성애), 레위남성성가단(지휘 이경원), 베벨교회 시온성가대(지휘 오성애), 보블리스 선교합창단(지휘 김철이), 나성한인교회(지휘 김경태), 동양선교교회(지휘 이준실)이 참가했으며 연합합창으로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불렀다. 이날 코랄페스티벌은 신동철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스칼라심포니 오케스트라 2019 콘서트나이트에서 전출연자들이 공연을 마친후 청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천기총, 신천지와 공개토론 무산

신천지측, “회장만 입장” 토론장 입장막아

천안시기독교총연합회(천기총·회장 임종원 목사)와 신천지에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주 이만희)의 공개토론이 ‘천기총 회장 외에는 입장할 수 없다’는 신천지 측의 일방적 요구에 최종 무산됐다.

천기총 소속 유영권 목사(빛과소금의교회) 등 관계자 10여명은 지난 22일 천안 아이비컨벤션센터에서 신천지 주최로 열린 공개 토론회장을 찾았다. 애초 신천지 측은 “신천지 천안교회와 천안시기독교총연합회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며 시내 곳곳에 현수막과 함께 홍보물을 게시했다.

이에 유 목사 등 천기총 소속 목회자들은 해당 장소를 찾아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신천지 측에서는 “천기총 회장 임종원 목사 외에는 입장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이들의 토론회장 진입을 막고 나섰다. 유 목사는 신천지 측에 “임 회장의 위임을 받아 왔기에 토론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지만, 신천지 측은 “인정할 수 없다. 당장 퇴거하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천기총 관계자들은 “공개토론이라고 해놓고선 입장객을 가리겠다는 건 무슨 의미냐”며 맞대응했다.

하지만 충돌을 우려한 경찰 측이 제지에 나섰다 결국, 천기총 측은 토론회가 열리는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견해를 밝혔다.

유 목사는 “우리 측의 토론회장 입장을 막은 것만으로도 신천지 입장에서는 우리와 공개토론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본다”면서 “신천지는 ‘공개토론 참석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천기총 측에 보냈다’고 하지만 우리는 받지 못했다. 또 공개토론이라기에 왔는데 이렇게 토론장 안으로도 못 들어가게 막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천기총에서도 오늘 공개토론회를 열고 있다”면서 “지난 6일 신천지 측에 참석을 요구하는 내용증명도 보냈다. 신천지 측에서 천기총의 공개토론회에 온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들을 정중히 맞이하고 그들의 입장을 변론할 기회를 주겠다”고 덧붙였다.

유 목사의 말처럼 천기총 측에서도 같은 날 천안 나사렛대학교에서 ‘신천지와 이만희의 거짓을 밝히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앞서 천기총 측은 성명서를 통해 “천

기총이 신천지 측에 수차례 공개토론을 제안했음에도 신천지 측은 자신들의 공개토론 요청에 응한 사람이 없다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찾은 초청 장소 및 시간 변경, 공식 초청의 격식에 맞지 않는 행동 등으로 공개토론을 불발시키면서도 홍보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고 있다”고 신천지 측을 비판했다. 또 “이만희 교주에게도 직접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이 교주 측에서 토론대상자로 급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토론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천기총 측은 이날 토론회 장소에 이 교주 등 신천지 측의 참석을 요구하며 자리까지 따로 마련했으나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신천지 측에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천기총 측은 이덕술 예수님사랑교회 목사와 신현욱 구리 초대교회 목사가 각각 ‘이만희는 이진자인가?’ ‘이만희(신천지)는 진실한가? 성경적인가?’에 대해 발표하며 토론회를 대신해 진행했다.

천기총 측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신천지 측은 공개토론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하지 말 것’과 ‘본 공개토론은 천기총에서 요청했고 이를 거부하고 무산시킨 것은 신천지 측이자 이만희 교주’라고 선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세계밀알연합 창립 40주년 기념대회

“장애인 전도·섬김에 앞장, 하나님 뜻 이룰 것”

세계밀알연합(총재 이재서 총신대 총장)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세계밀알연합은 20일부터 3박4일간 서울 세종대에서 ‘밀알 창립 4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하고 미주 유럽 등 21개국에서 활동하는 리더 360여명을 초청해 지난 역사를 축하하고 향후 사역 방향을 논의한다. 세계밀알연합은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을 목적으로 1979년 이재서 총재가 창립한 한국밀알선교단을 모태로 한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밀알을 합쳐 현재의 이름으로 95년에 출범했다.

21일 기념예배는 김한옥 세계밀알연합 이사장의 사회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부총회장인 김중준 서울 꽃동산교회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김 목사는 설교에서 “40년 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한 사람으로 시작된 밀알이 세계적인 단체로 성장한 것은

인간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밀알은 그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다양한 사역을 펼쳐왔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전도와 봉사, 계몽에 앞장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밀알이 40년간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면서 “탁월한 지도력과 장애인 선교 비전,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지닌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밀알이 가능했다”고 소개했다.

2부 기념식에선 한국 미주 유럽지역 총단장을 맡아 밀알 사역의 기초를 놓고 장애인 선교에 헌신한 강원호 정책팀이 영선 나기호 성경선 문창석 목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세계밀알연합은 그동안 국내외 장애인 전문사역자를 훈련

해 파송했으며, 2001년부터 장애인 대학생에게 장학금 28억원을 지급했다. 사회복지법인 세석밀알을 설립해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과 직업 재활시설, 주간 보호센터, 공동생활 가정 등을 운영했다. 북한 장애인 지원사업도 펼쳤는데 휠체어와 목발, 지팡이, 소리 나는 시계, 향생제 등 86억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이 총재는 40주년 감사인사에서 “밀알이 지난 40년간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장애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신앙운동, 선교운동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들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밀알이 앞으로의 40년 사역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좀 고리타분해 보여도 40년 전 하나님께서 주신 기독교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며 세속화를 막아야 한다”면서 “또한 밀알이 하나님의 공적 기관인 만큼 절대 사유화되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22일에는 지도자 대회와 총단장 이취임식, 지도자 그룹 토의를 가지며 23일 폐회 예배를 갖고 행사를 마친다.

義)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가 기업철학”이라고 했다. 120억원 나눔의 철학은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에서 배웠다고 소개했다. 그는 “초대교회에서 모든 재산은 서로 나누는 것이었다”면서 “애초부터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황 목사는 역대하 25장의 아마사 왕 이야기를 통해 ‘정직과 온전’의 의미를 강조했다. 우리가 타인을 평가하는 기준을 ‘ABCDE’라고 한다며, 이는 나이(Age) 외모(Beauty) 성격(Character) 학벌(Degree) 경제력(Economy)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황 목사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란 질문을 던졌다. 답은 설교 제목처럼 ‘정직과 온전’이었다.

황 목사는 “여기서 정직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품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미네랄바이오 브랜드로 다시 돌아와 약용 성분이 있는 피부 개선제 화장품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강 회장은 “적은 소득이 의(

“동성에 옹호·조장, 성평등 조례 개정하라”

경기도민대회 2만명 참석 촉구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와 건강한국만들기국민연합 등 60개 단체가 25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 앞에서 ‘나쁜 성평등조례 반대와 재개정을 위한 연합기도회 및 도민대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회에서 경기총 대표회장을 지낸 장항희(고양 든든교회) 목사와 경기총 상임회장인 유만석(수원 명성교회) 목사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지기 위해 윤리 도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경기

도 성평등조례라는 악법부터 반드시 바로잡자”고 설교했다.

소강석(용인 새에덴교회) 목사는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옥본 경기도의원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은 뜻이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성평등이 남녀평등이 아니라 성적지향, 제3의 성까지 포함된다’고 과거에 주장했던 사실이 밝혀지면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소 목사는 “이는 경기도민과 성도들을 철저히 기만한 행위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해 더블

어민주당 의원들의 전폭적 지지로 개정된 이 조례는 적용 대상 범위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종교기관과 일반 기업까지 확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범인 조례가 상위에 있는 헌법과 법률과 충돌하는데도 종교 양심 사상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윤성 미국변호사는 “이번에 개정된 조례대로면 성평등위원회가 채용, 차별금지, 성희롱 예방 조항을 근거로 교회와 신학교에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채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총과 시민단체는 앞으로 조례반대 순회 설명회 개최, 반대서명 작업을 벌이고 도민 10%의 서명을 받아 조례개정 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이념·종교 편향 교과서 개정 필요”

한교총 종교문화새신위 기자회견 열고 촉구

한국교회총연합 종교문화새신위원회(위원장 허태선 목사)는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념·종교 편향성이 짙은 교과서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서 한교총 종교문화새신위 전문위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홍콩 주민들은 자유를 찾기 위해 12주 연속 비폭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면서 “그들이 폭우와 무더위 속에서 목숨 걸고 자유를 지키려는 것은 자유가 생명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인류 역사상 국가가 나서서 천부인권인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폭정을 가할 때 전체주의라는 지옥문이 열렸다”면서 “우려스러운

현상은 지난해 헌법개정 시도 과정에서 ‘통일’과 ‘민족’이라는 미명 아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홍콩 사태에서 보듯 남북의 사상, 제도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연방국을 지향하는 ‘1국가 2체제’란 존재할 수 없다”면서 “왜냐하면 하향평등 신분사회인 북한이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짓밟고 독재자와 공산당을 중시하는 전체주의 시스템을 태생적으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위원은 “교육부는 교과서에서 천부인권인 자유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는 소중한 유산

을 후손에게 잘 전수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동성애를 미화하고 성 정체성에 혼란을 조래하며 이슬람교에 편향적인 교과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동섭 전문위원은 “현행 역사 교과서의 종교 서술 분량을 보면 이슬람교 46.1%, 불교 19%, 천주교 15.5%, 힌두교 10.4%, 개신교 3%로 이슬람 편향이 심하다”면서 “교육부는 특정 종교 편향 현상을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영태 진실역사교육연구회 대표도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보건’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도덕’ 등의 교과서에 급진적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동성애를 미화하고 성 정체성을 혼란케 하는 교과서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위기 무감각증 빠진 우리사회 우려”

한교연, 27일 성명내고 정부 대응 자세 비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27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정부의 대응 자세를 비판했다.

한교연은 ‘안보 위기 무감각증에 빠진 우리사회 심각히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함으로써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안일한지 그대로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들어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안보

위기에 대한 불안감도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김정은이 미북 정상회담점 만남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면서 “그 목적은 겉으로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는 척 하면서 한미동맹을 흔들어 한반도에서의 전쟁 역지력을 약화시키고 핵무기 개발을 완성해 적화통일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를 직접 겨냥해 저급한 욕설과 조롱하는 막말을 쏟아내는데도 정부가 북한에 끌려 다

니는 듯한 무기력한 모습에 온 국민의 마음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교연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논란과 관련해 경제문제를 안보문제로 맞대응한 이번 결정이 과연 안보와 국익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는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바르게 판단하고 시행해줄 바라다”고 요청했다.

“초대교회처럼 나누며 살자”

제4회 크리스천리더스포럼 “주님 기준은 정직과 온전”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크리스천 오피니언 리더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 모였다. 국민일보 크리스천리더스포럼(CLF·회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은 제4회 포럼을 통해 정직과 온전으로 주님 앞에서 겸손할 것과 나눔의 신앙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강석창(여의도순복음교회 안수집사) 소망글로벌 미네랄바이오 회장이 만성 두드러기 질병과 상고 중퇴라는 핸디캡을 딛고 ‘꽃을 든 남자’ ‘다나한’ ‘미라’ 등의 화장품 브랜드로 활약한 이야기를 간증했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 120억원을 기부한 강 회장의 스토리에 참석자들은 박수를 보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서울강남노회장인 황명환 수서교회 목사는 ‘정직과 온전’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강 회장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오래된 과자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 만성 담파진이란 두드러기 질병에 걸렸다”며 “세상

약을 아무리 먹어도 치료되지 않고 부작용으로 몸이 약해져 결국 덕수상고 3학년 때 자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육체적 고통을 극복하고자 종교 탐구를 시작했다는 그는 “박종순 관석희 조용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들으며 성경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생겨났다”고 전했다.

강 회장은 “군대에서 의가사 제대를 한 후 파산 직전이었던 부친의 파마약 공장을 맡아 운영하다 지인의 도움으로 화장품 사업에 눈을 뜨게 됐다”고 밝혔다. ‘소망글로벌’은 모르지 만 ‘꽃을 든 남자’ 브랜드는 아는 이들이 많다. 축구 국가대표 안정환과 배우 현빈 등을 모델로 등장시킨,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광고와 함께 남성화장품 열풍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미네랄바이오 브랜드로 다시 돌아와 약용 성분이 있는 피부 개선제 화장품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강 회장은 “적은 소득이 의(

“욥기는 본문인용 정도 그쳐 의미 축소돼”

한국성경신학회, ‘욥기 주해와 설교’ 논문 발표회

구역성경 욥기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와 함께 5대 ‘지혜서’로 알려져 있다. 고통에 대한 긴 묵상과, 상반된 견해를 담고 있는 논쟁 이야기가 많아 난해한 성경으로 꼽힌다. 하지만 30여년 전부터 세계 구역신학계에서 다양한 관련 연구가 쏟아져 나와 욥기는 더 이상 어려운 책이 아니라 선명해진 ‘정답’을 가진 성경으로 인식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중앙교회에서는 지난 19일 한국성경신학회가 주최한 ‘욥기 주해와 설교’를 주제로 논문 발표회가 열렸다.

현장학(합동신학대학원대) 박사는 “욥기는 (주제)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쉬운 방식으로 설교되기 일쑤였다. 욥기의 진정한 의미를 강해하는 대신 그저 이미 알고 있는 교리를 증명하는 본문 인용 정도에 그침으로써 책의 의미가 축소되곤

했다”며 “충분한 연구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욥기이고 책 전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어느 한 본문도 설교할 수 없는 것이 욥기”라고 설명했다.

현 박사는 지혜서 문맥 내에서 욥기의 위치를 비롯해 욥기의 구조, 욥기의 주제를 살폈다. 그는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 부분(38:1-42:6)에 주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며 “욥기는 인간의 고난 또는 하나님이 운영하는 도덕질서란 인간 눈에는 불가해한 것이며, 고난은 보응의 원리나 반보응의 원리가 답할 수 없는 수수께끼임을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욥기는 이 외에도 ‘인간의 눈에는 불가해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운 통치자이시며 악과 혼돈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제거하시며 궁극적으로 정

의를 구현하신다’ ‘인간에게 불가해한 고난이 오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고 인간이 자신의 ‘숨겨져 있음’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하나님의 운영은 불가해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운 운영을 하고 계시다’ 등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현 박사는 전했다.

장세훈(국제신학대학원대) 박사는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 “욥기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욥의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자각하도록 이끌어주는 지혜자의 이미지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장 박사는 “욥기 38-4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언설은 욥으로 하여금 피조물로서의 자기 인식과 한계를 깨닫게 하는 지혜교사로서의 이미지를 드러낸다”며 “이 같은 지혜교사의 교육을 통해 욥은 비로소 자신의 한계와 정체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된다”고 말했다.

선교의 창 (128)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에 대한 소고(小考)

최근 외부 요인에 의해 강제적으로 추방된 선교사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가리켜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라 부른다. 사역지에서 추방되는 선교사들은 대체로 10년 이상 되는 베테랑들이다. 저들은 대부분 한 종족이나 국가를 품고 일생 동안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자들이다. 어떤 이들은 유서를 써 놓고 장도에 오르기도 한다. 헌데 “이게 웬 말인가?”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뒤로 한 채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던 저들에게 추방은 날벼락과 같은 것이다. 혹자는 “이를 빚대어 큰 트럭과 부딪치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다”고 표현한다.

어쩌든 비자발적 철수는 당사자나 후원교회 차원에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자격지심(自激之心)이나 감성적 시각으로 보는 것은 금물이다. 추방건은 사역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선교에서 한 과정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선교사를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고 격려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한인 세계선교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이들을 적절히 재배치하는 것이다. 그렇지 아닐 때에 한인 세계선교는 종말론적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다.

1. 추방 선교사들의 사례

A 선교사는 선교사명을 위해 뼈를 묻을 각오로 러시아에 갔다. 그는 15년 동안 교회개혁 사역을 열심히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추방을 당하게 되었다. 갈 곳 없는 탈북민 가족에게 며칠 숙식을 제공한 것이 화근이었다. 현지 선교사들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불법체류자 건은 인권문제가 아닌 정치문제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추방기간 5년이다. 하지만 이후 비자가 다시 나온다고 해도 돌아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A선교사 가족은 현재 국내 친척 집을 전전하고 있다. 혼자도 아니고 가족을 대동한 중년 선교사를 아무리 친척이라 해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B선교사 역시 큰 사명을 가지고 중국에 갔다. 그는 대학생 제자훈련 사역을 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이 크게 확장되었다. 규모가 커짐으로 자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결국 작년 말에 사역이양도 제대로 못한 채 나온 추방되었다. 다행히 그 아내와 아들은 3개월 더 체류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설상가상이라 했던가? 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큰 수술을 하게 되었다. B선교사는 중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다. 모든 것은 홀로 남은 아내가 처리해야 했다. 여기 두 건의 사례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사역현장에서 발각될 경우 취조를 당한 후 곧장 비행기를 타고 떠나야 한다. 정말 말 못할 사연과 고통을 당한 선교사들이 부지기수이다.

2. 추방된 선교사의 아픔

선교사들은 비자 거부를 당하거나 추방을 당하면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당황스럽기 그지없다. 사역 이양과 정리, 철수비용, 자녀들의 학교 문제 등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본국에 돌아와서도 이중고(二重苦)를 겪기 마련이다. 사역지가 없는 선교사가 됐다는 심리적 압박감에다 ‘추방당한 선교사’라는 따가운 시선에 직면하게 된다. 1차적으로 사역자의 부주이나 체재전

망다는 마음 때문에 자책감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더 힘든 건 후원교회나 후원자들이 등을 돌리고 후원을 끊는 경우다. 그럴 경우 선교사는 사역과 생활기반 모두를 잃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추방된 사역자는 불시에 사역의 터전을 잃는 상실감과 함께 환경의 변화로 인한 잠재적인 두려움과 불안감 등으로 인해 심각한 상처와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3. 파송교회와 단체의 인식 변화와 역할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 부상 당해 후방으로 철수되었을 때 이들을 맞이하는 향토민들은 어떠한가? 우리 대신 나가 싸운 장병들을 마땅히 위로하며 따뜻하게 보살펴야 하지 않는가?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들은 심신이 무척 고달픈 가운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파송교회나 단체

의 삶과 사역, 추방상황까지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고, 적절히 디브리핑의 멤버케어가 필요하다. 나아가 선교사를 대상으로 상담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 재배치를 하는 등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4. 추방 선교사에 대한 재배치 전략

추방이 큰 위기상황이지만 동시에 다른 지역과 대상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교사 추방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글로벌 선교전략을 위해 우리는 다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선교사의 자세이다. 평생 헌신을 다짐한 선교사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사역의 중단이다. 이에 선교사는 복음의 열정뿐만 아니라 현지 나라의 정책과 문화를 잘 이해하고 만나지 않게 접근해야 한다. 가

사와 일체감 있는 호흡이 필수적이다.

셋째, 동료 선교사들의 자세이다. 어떤 곳에서는 텃세를 부리며 재배치되어 온 선교사들을 따돌리기도 한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서 우리는 한 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교사들끼리 반목하며 냉대하는 것은 비극이다.

넷째, 파송단체들의 자세이다. 선교단체 안에서 추방 선교사나 선교사 위기관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다. 단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을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고 정확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맺음 말

선교사가 추방당하는 경우는 주로 종교의 자유가 없고 법적으로 제한된 선교지에서 많이 발생한다. 중동을 비롯한 모슬렘 지역에서의 추방은 워낙 그 뿌리가 깊고 예측 가능한 것이라면 최근 중국과 러시아 및 인도에서의 선교사 추방 및 철수는 다소 돌발적이어서 선교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아무튼 선교사는 그 지역과 국가에서 불법자로 취급되어 추방당했다 할지라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다. 이에 추방된 선교사들은 한인교회의 부담이 아니라 세계선교를 향한 전략자산이다. 저들의 소명과 은사와 노하우는 값진 것이다. 그것은 일확천금(一攫千金)으로도 살 수 없다. 따라서 한인 세계교회는 저들을 더 따뜻하게 감싸고 회복시켜 오대양 육대륙으로 재파송해야 한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는 더 속도감 있게 힘을 발할 것이다.

jrson007@hanmail.net

선교에서 비자발적 철수는 사역적 실패가 아니다.

추방을 당한 선교사는 심신이 고달프고 예민하다.

파송교회나 단체는 저들을 영접하고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한인 세계선교는 글로벌한 시각으로 전략 자산인 저들을 재배치해야 한다.

략의 부재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기 쉽고, 현지 체제나 법에 대한 대응 소홀의 비난을 받을 소지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파송교회와의 관계를 신경 써야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초지종 설명을 해야 한다. 가족들 역시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자녀들의 학업 문제는 심각하다. 한국선교 상담지원센터 이경애 공동대표는 “추방당한 선교사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간 사람들인데, 사역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관계자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매우 중요하다. 잘못된 대처가 선교사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게 되기 쉽다. 추방 사유를 집요하게 묻는대거나, 추방 책임을 선교사들에게 돌리는 등 부지불식간의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하며 챙겨주는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 저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상처가 덧나기 전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은 선교사로 하여금 사역지에서

능한 공격적인 사역을 절제해야 한다. 동시에 현지 지도자를 양육하며 미연에 하나씩 리더십을 이양해야 한다. 또한 언제, 어디서라도 사역을 계속할 수 전문성을 배양해야 한다.

둘째, 후원교회의 자세이다. 글로벌한 선교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가 사는 지구촌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꼭 첫 파송지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언어와 문화권이 같은 곳이면 유동성 있게 선교사를 재배치하고 후원해야 한다. 파송 선교



드라마 신약 (3)



김덕수 목사 (생터사역원 LA지부장/하늘소망교회 담임)

우리는 구약을 시간순서대로 읽어 왔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시대 400여년도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신약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은 크게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역사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기록된 사복음서를 목록순서(마태, 마가, 누가, 요한)대로 차례로 읽으면 예수님의 일생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굵직한 사건들을 통합하여 시간순서대로 재배치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4번의 유월절을 맞으셨고, 유월절마다 특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유월절들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갈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4번의 유월절을 맞으셨고, 유월절마다 특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유월절들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갈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4번의 유월절을 맞으셨고, 유월절마다 특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유월절들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갈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레 요한의 집회장소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후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40일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다시 세례 요한의 집회장소에 오셔서 5명의 제자들-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을 만나셨습니다(요1:29-51). 예수님은 5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갈릴리로 이동하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후 가버나움에 잠시 들렀다 오십니다. 아마도 이사할 집을 알아보신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베이스캠프는 가버나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생애 첫 번째 유월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유월절마다 특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공생애 이후 첫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십니다. 사실 유대인 남자들은 일년에 세 번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세 번의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이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엮으셨습니다. 유대와 갈릴리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흠어진 모든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모여 들었던 바로 그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해지던 제물장사 상을 엮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

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안나스였고,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샀습니다.

사실 성직매매는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야손이라는 사람로부터 상당한 돈을 받고 그를 대제사장에 임명하였습니다. 야손은 돈을 주고 성직을 매매한 첫 인물이었습니다. 그 후에 메넬라우스는 야손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때부터 시작된 성직의 매매는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안나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구입했으니, 제물 장사를 통해서 성직구입을 위해 지불하였던 원금을 회수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성전에 내는 돈은 ‘거룩해야 한다’고 하여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은으

로 만든 별도의 화폐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전화폐로 바꾸어 주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환전 수익도 챙겼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청결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죄인들이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는데, 그 장소가 대제사장의 비즈니스 장소가 됨으로써 더럽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극히 미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아성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아직까지 분명치 않습니다. 적대적 관계에 있던 사두개인들의 표적이 된 예수님에 대하여 적군인지 아군인지에 대하여 아직은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이 예수님의 소식은 삼시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성전 청결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8개월 동안 유대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니고데모를 만나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요3장).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하여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에 생명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생애부터 첫 유월절까지

예수님 본격적 사역시작 후 ‘군중쏠림현상’에 바리새인들 적으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외치셨던 메

(14면으로 계속)

선교/칼럼

지용주 목사 (시라쿠스한인교회)

“복음에 빛진 자로서 The First United Church of Fulton에 서다!”

"폴턴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국에 첫 개신교 선교사가 오기도 전 1850년대에 만들어 졌던 폴턴교회! 우리는 그들이 파송한 선교사들의 복음을 받았고, 이제 복음에 빛진 자로서 그 빛을 갖기 위해 그들의 교회로 나아가 여름성경학교(VBS)를 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폴턴 교회의 VBS 이야기를 소개한다. [필자주]

2019년 6월 16일 새벽에 일어나 2년 동안 기도하고 보낸 한 미국 목사님의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분은 주님을 부르심을 받아 50대 말쯤 목사님이 된 분입니다. 이전에는 간호학 교수를 했으며, 지금 80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여자 목사님입니다. 지금 폴턴연합장로교회 임시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의 말에 의하면 폴턴교회는 현재 평균 8-20명 정도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25명 출석한 예배가 최근에 가장 많이 참석된 예배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교인은 60-80 대입니다. 50대말 정도로 되어 보이는 자매님이 자신은 우리 교회에서는 Youth라고 소개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조건적으로 보면 얼마 있지 않아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40년 전만해도 400명 이상이 들어가는 본당이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곳에 40년 동안 다니고 있는 한 집사는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고 했습니다.

현재 80세인 루이스(Rev. Louise Barger) 목사님은 2년 전 미조리에서 이곳에 부임하셨고, 현재 이 교회에서 임시로 담임 목회를 맡고 있습니다. 아마 루이스 목사님은 이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님께서 불을 지피시면, 이 교회를 다

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폴턴교회를 위해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교회 주위에 어린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VBS를 통해서 주일학교를 부활시키고, 그 어린이들을 통해 그들의 부모들을 교회로 인도함으로써 교회를 갱신하고 부흥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노회에 소속된 몇 미국 교회들에게 VBS 도움 요청을 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이번 여름 우리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메일 보내왔습니다. 요청의 이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Dear Rev. Jee, I am the Rev. Dr. Louise Barger. I serve as the Interim Pastor of First United Church in Fulton. Our church is located in one of the high rental areas of the town. There are many children and we have had contact with some of them from time to time. It has been a hope of mine, supported by the church Council to have a Vacation Bible School. However, we lack leadership because all but of few of the people in the congregation are senior adults. They would help in some way but could not take on major leadership. Some months ago I saw your

presentation at the Presbytery meeting and I have been in conversation with Elder Rita Hooper. It is our hope and prayer that a group from your church could make us a mission



project this year. Please contact either me or Rita to talk further about it."

내용인즉슨 우리 교회가 이전에 노회에서 지난 10년간 해 온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성경학교(Lodi mission)사역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의 영상을 보고 VBS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는 글입니다. 교회 운영위원회가 지원하는 VBS를 하는 것이 지금 루이스 목사님이 가진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VBS를 하는 것이 80세나 되신 목사님의 소망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사도 바울이 본 환상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환상 중에 나타난 마케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폴턴에 건너와서 우

리를 도우라"라는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처음에 루이스 목사님이 교회 리더들에게 "한인교회에 VBS를 부탁하자"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모두 목사님께서 농담하시는 것으로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루이스 목사님이 보내신 이메일에 우리 교회가 기꺼이 돕겠다는 답장을 보내자, 그 교회 리더들 모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상식에 맞는 제안도 아니었고, 정말로 한인교회가 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폴턴교회 주변은 정말로 아이들이 많은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있는 한 집에는 11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어떤 집에는 6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영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교회에 오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마치 13년 전에 난민들이 모여 사는 시라쿠스의 로다이 거리에서 느꼈던 영적인 눌림(누르는 무게)이 느껴졌습니다. 무겁게 덮인 영적 어둠이었습니다. 교회 주변은 주로 백인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강박함과 교만과 무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함께 한 9명의 어린이 외에는 아무도 아이들을 VBS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함께 했던 한 선생님의 말처럼 40명의 교사, 45분의 바이블 클래스를 하기 위해 45시간을 준비했습니다. 45분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곳에는 어린이 '한 명'이 '복음의 메시지(Jesus is the Christ)'를 듣고 있었습니다. What a waste! 얼마나 허비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 한 사람의 귀중함을 알았고, 그 한 아이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작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5, 16일 이틀간 은혜 충만함과 기쁨의 충만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참여했던 폴턴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감사하였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오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놓고 기도했던 한 나이에 여중의 기도를 지켜보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교회 본당에서 기도하는데 루이스 목사님의 기도의 음성, 기도하는 겸손한 간구가 보이고 느껴져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냥 몇 년 동안 조용히 섬기다가 떠나면 되는 임시 목사님의 자리에서 80살의 나이에, 게다가 다리도 불편하여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는 신체적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청년의 열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기도하는 그분을 통해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 저것이다. 인생이 녹슬어서 못쓰는 것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져야 하는 삶이 이것이다'하는 여중의 삶을 배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폴턴교회를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앞으로 폴턴교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었고, 폴턴교회는 그 교회에 준 하나님의 일, 즉 VBS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할 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찼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후, 2019년 8월 18일 주일 아침 목사님께서 보내오신 감사 메시지입니다.

"There are not words to describe our thanks to God and to all of you for the spiritual experience that happened at VBS. We are grateful for the decisions made and grateful for the new vision that was caught by the adults. Blessings to all. Pastor Louise"

이것이 Fulton VBS의 이야기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롬1:14). ...그리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행16:9).

드라마 신약 (3)

<13면에서 계속>

죽음과 사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다는 생명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며 예수님께서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본격적인 사역을 이미 시작하

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이 때부터 소위 '군중솔리현상'이 생깁니다. 세례 요한의 청중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이

런 현상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의 심기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권력의 기반은 군중이 있었었는데,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심기가 많이 불편

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아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하십니다(요4:1-4).

다음 이야기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도착하신 갈릴리에서의 사역(1차 갈릴리 사역)과 두 번째 유월절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본교는 34년 전통의 복음주의적인 초교파 신학대학(원)으로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수, 기업인, 의사 등 동문들이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음.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D.Min.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2.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chelor of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신학(성서신학, 기독교교육)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항공학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ster of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Doctor of Musical Arts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Ph.D. in Leadership 리더십철학박사 Ph.D. in Counseling 상담철학박사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u.gov/accreditation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

영어로 보는 성경 (32)

English Bible

이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Amos 2:4,5

4) This is what the Lord says: "For three sins of Judah, even for four, I will not turn back my wrath. Because they have rejected the law of the Lord and have not kept his decrees, because they have been led astray by false gods, the gods their ancestors followed, 5) I will send fire upon Judah that will consume the fortresses of Jerusalem."

(NIV 1984)

WORD & IDIOM

* turn back: 되돌리다 * wrath: 분노, 격노, 노여움 * reject: 거절하다 * decrees: 법령, 율례, 포고 * astray: 길을 잃은, 타락한 * be led astray: 길을 잃다, 타락하다 * ancestors: 선조, 조상 * consume: 태워버리다 * fortress: 요새

GRAMMAR

4) This is what the Lord says: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For three sins of Judah, even for four,

유다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가 될 수도 있는

I will not turn back my wrath.

나는 나의 노여움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노여움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 <This is what the Lord says>에서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다. This는 (:) 이후의 모든 내용을 가리킨다. * <even for four>는 <even for four sins of Judah>를 줄인 말로 여기서의 <even> 혹은 네 가지의 죄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쓰였다.

Because they have rejected the law of the Lord
그들이 거절 해왔기 때문이다 주님의 법(을)

and have not kept his decrees,

그리고 그의 율법(율례)을 지켜오지 않았다 => 그들이 주의 법을 거절해왔고 그의(주의) 율례를 지켜 오질 않았기 때문에,

* <They have rejected ~>는 현재완료형으로 과거에 한번 <the law of the Lord>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절해오고 있다는 의미다. * <have not kept ~> 역시 현재완료형이다. 여기서의 주어는 <they>이다. 주어가 같을 경우 접속사(&)로 연결된 뒤의 문장에서는 주어를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다.

because they have been led astray by false gods,
그들이 타락해 왔기 때문에 거짓 신들에 의하여

the gods their ancestors followed,

그 신들 그들의 조상들이 따랐다 =>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따랐던 그 신들, 거짓 신들에 의하여 타락해왔기 때문에,

* <they have been led astray>는 현재완료의 수동태 문장이다. 주어인 <They>가 거짓 신들에 이끌려서 지금까지 타락해오고 있다는 말이다.

5) I will send fire upon Judah

나는 유다위에 불을 보낼 것이다

that will consume the fortresses of Jerusalem."

(Judah) 태워버릴 것이다 예루살렘의 요새를 => 나는 예루살렘의 요새를 태워버릴 불을 내릴 것이다.

* <that will consume ~>에서의 <that>은 <fire>를 받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그 불(fire)이 어떤 불인지를 <that> 이하의 내용이 수식해주고 있다.

STUDY & THOUGH

- 아모스는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의 선민(選民)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한 이상 이방의 열국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그러나 아모스의 메시지가 북이스라엘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남유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중요한 범죄, 즉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과 거짓 것에 미혹된 우상숭배만을 책망하고 있다.
- 우상숭배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과 관련되고 있음을 볼 때,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는다.
- They rejected the Lord's teachings and refused to obey Him.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훈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왕상17:3-7)

온 세상이 타락하고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본문에서 까마귀는 본래 시체와 썩은 것들을 잘 먹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싱싱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줍니다. 내가 하나님 한분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가갈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침저녁으로 공개하십니다.

화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왕상17:8-10)

본문에서 엘리야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에 사는 과부에게 가라는 명령이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던데 있는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두 가지가 이해되지 않았습디다. 첫째

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합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왕 옛바알이 다스리던 동네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부에게 공개를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을 오히려 도와줘야 하는데 과부에게 가서 공개를 받으라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즉시 순종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즉시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수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왕상17:10-11)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움직입니다.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만났는데 나무를 쪼고 있었습니다. 땀감도 없이 길에서 나무를 주어 불을 때는 가난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엘리야는 먼저 물을 가져다가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시냇가에 물이 마를 정도라면 먹을 물을 얻기가 힘든 때였지만 이 여인은 즉시 물을 가지

러 갑니다. 물을 가져러 가는 여인에게 엘리야는 한 가지 더 떡 한 조각을 가져와 먹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적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죄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이 임하여 명령하신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목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왕상17:10-16)

본문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해 기적을 보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이 기적을 체험할 만한 순종이 있습니다. 도저히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지막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말씀하

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자세를 먼저 보십시오. "이것만은 안된다"고 꼭 잡고 있는 것을 지금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집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과부와 온 식구가 여러 날 먹었습니다.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금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왕상17:1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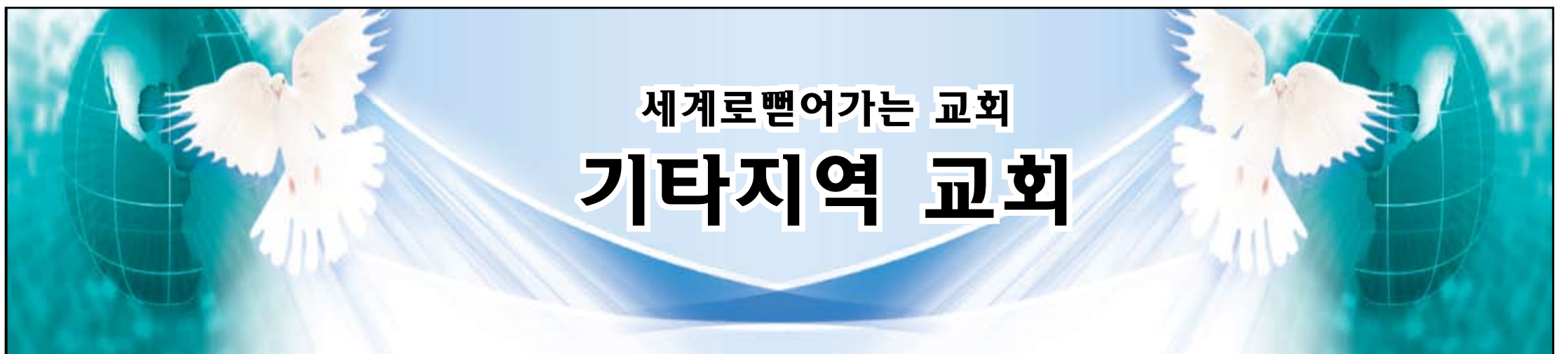
사르밧 과부는 떡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는 기적을 체험을 한 후에 엘리야 선지자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다락방에 침상을 꾸미며 정성스럽게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병이 들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집에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도 아들이 죽으니까 주의 종을 원망하고, 자신의 죄책감에 빠지는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는 아들과 함께 죽을지언정 아주 담대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여인이었는데 아들이 병들어 죽은 모습을 보고 신앙이 흔들립니다. 아들이 죽은 것이 마치 선지자 때문인 것 같고 자신의 죄 때문인 것같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토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왕상17:17-24)

본문에서 이 여인의 신앙이 흔들리면서 2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는가? 하는 과거를 추적하는 연약함을 노출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섭섭하게 생각되고 내가 뭔가 잘못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지 하는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

금 이 사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생긴 사건입니다(요9:3). 위기가 올 때 섭섭하고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 일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한):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살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 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 유, 유년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79-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9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8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el. (804)560-7500, www.i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9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버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4회 총신대학교 동문 남가주 체육대회

사당동과 양지 캠퍼스에서 함께 비전을 나누며 사역을 준비했던 자랑스런 남가주에 계신 모든 총신 동문들이여! 이 가을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며 한바탕 뛰어봅시다!!!

일 시 : 2019년 9월 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예수 커뮤니티 교회 (담임 박경일 목사)
 15246 Barnwall St, La Mirada, CA 90638
참가대상 : 총신대학교 대학부, 신학대학원, 목연, 대학원(선교, 상담...), 박사원 등 졸업생 및 가족
문의 : T. (213)507-3875(회장), (213)675-3767(총무)

총신동문 체육대회 조직

- 명예 대회장 : 김혜성, 윤성원, 최순길, 양종석
- 대회장 : 김경일
- 부대회장 : 박경일, 김미선, 민경엽, 정우성, 김선일, 신용채, 지윤성, 하요한, 남성수, 이종희
- 준비(진행)위원장 : 김선일
- 진행위원 : 서오석, 곽부환, 정충일, 신춘식, 장상근, 서은희, 오지은, 김시온,
- 심 판 : 축구(양경선), 피구(장상근), 훌라후프(정우성), 족구(김광삼), 릴레이(백현)
- 행운권 추첨(50명) : 핸드폰, 요세미티(3박4일) 여행권, 햄프함초환, 우메켄, 한영성경책, 독서대 등등...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133:1)

대회 종목

- 1) 축구 (남 11인제, 전 후반 20분, 청백) : 총22명
- 2) 피구 (여 15인제, 단판, 청백) : 총30명
- 3) 훌라후프 돌리기 (남녀 각 10명-1, 2, 3등) : 총20명
- 4) 족구 (남 6인제, 세트 10점, 3판 2승제, 청백) : 총12명
- 5) 500m 릴레이 (남녀 총9인, 청백팀) : 총18명
 - 65세 이상(남) : 1명(50M): 2명
 - 55~64세(남녀) : 각 1명씩 2명(남100M, 여 50M):4명
 - 45~54세(남녀) : 각 1명씩 2명(남100M, 여 50M):4명
 - 44~35세(남녀) : 각 1명씩 2명(남100M, 여 50M):4명
 - 35세 이하(남녀) : 각 1명씩 2명(남100M, 여 50M):4명



총신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 조직

- 고문 : 김혜성(학1회), 윤성원(신61회), 최순길(신73회), 양종석(신80회)
- 회장 : 김경일(신84회)
- 부회장 : 정우성(신83회), 김선일(신84회), 신용채(신84회), 지윤성(신86회), 하요한(신87회), 남성수(신89회), 이종희(신92회), 박경일(학76회), 김미선(학77회), 민경엽(학79회)
- 총무 : 서오석(신84회) * 부총무: 오지은(학89회)
- 서기 : 정충일(신98회)
- 회계 : 김시온(학92회)
- 감사 : 김광삼(학74회), 곽건섭(학74회)
- 분과위원회
 - *선교 분과위원장 : 이재환(신73회) *체육 분과위원장 : 김선일(신84회) *음악 분과위원장 : 장상근(학89회)
 - *홍보 분과위원장 : 양경선(학76회) *학술 분과위원회 : 이병구(신94회) *친교 분과위원장 : 백 현(신86회)
 - *의료 분과위원장 : 임정의(박1회)



총신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
CHONGSHIN UNIVERSITY

후원 : 예수서원, KAPC, 컴미션, BIZPOST GROUP, 이음카페, 미주한인재단 LA, 컬러캠,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 삼호관광, 새한여행사, 생명의 말씀사, 기독교적, 가주장 의사, 기독교일보, 미주크리스천신문